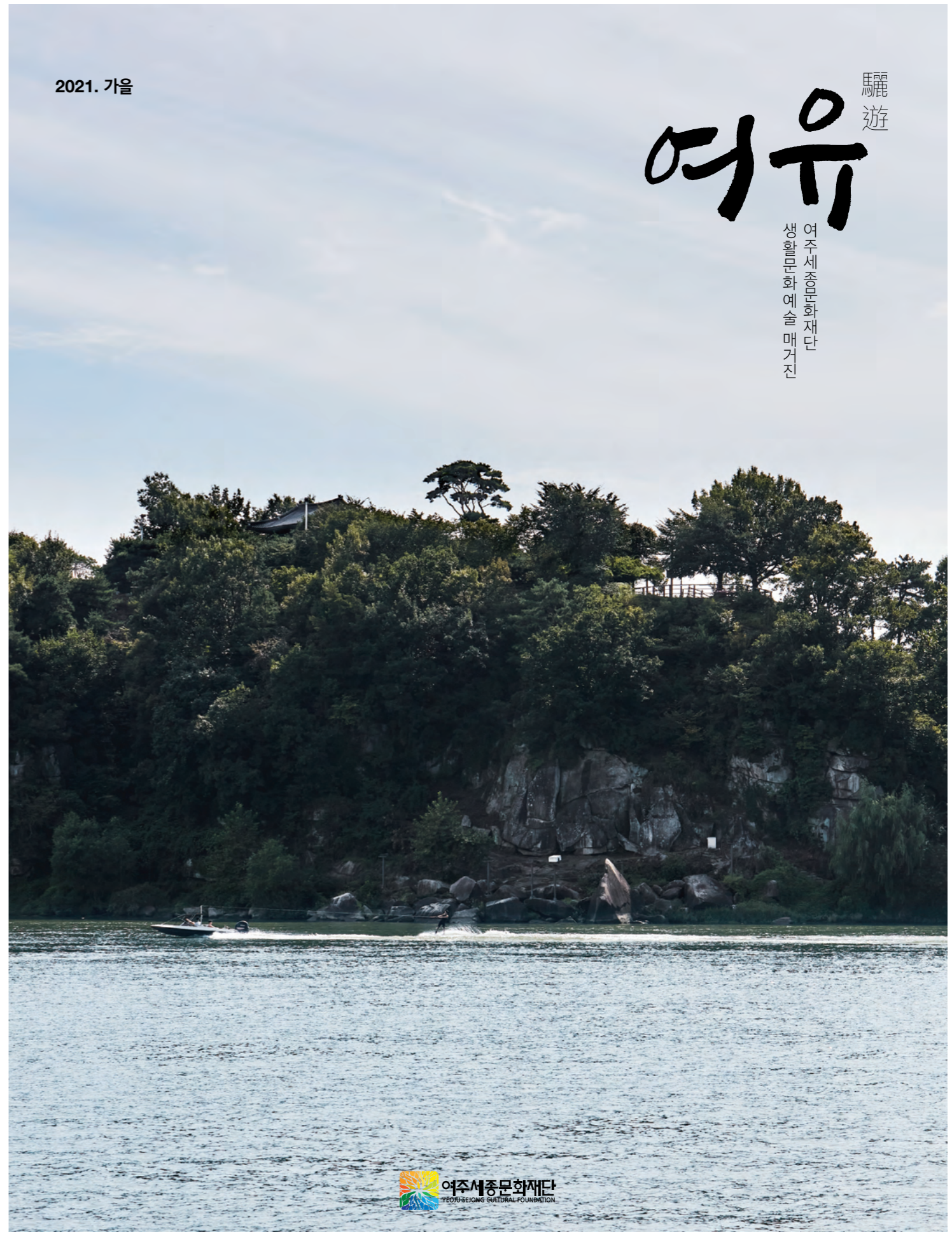


2021. 가을

# 여유

驪遊

여주세종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매거진



생활문화예술매거진 **여유** 驪遊

2021. 가을. 1호

여주세종문화재단



# 여유

여주세종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매거진

驪遊



## 표지 이야기

마암(馬巖)  
여주시 향토유적 제20호  
여주시 상동 132

“두 마리의 말이 기이하게 물가에서 나왔다 하여,  
이 때문에 고을 이름이 황려라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

여주 땅의 이름은 말 마, 바위 암  
마암(馬巖)에서 유래했습니다.  
금빛 말 황마(黃馬)와 검정말 여마(驪馬)가  
이 바위 마암에서 솟아나 여주(驪州)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마암이 시작되는 평평한 바위 면에  
‘馬巖’이라는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암 앞 강가의 고기잡이배에 등불 밝히는 풍경, 마암어등(馬巖漁燈).  
이곳은 여주의 8가지 아름다운 풍경, 여주팔경 중  
제2경으로 꼽히는 곳이지요.

바위에 새긴 글자 마암에 담긴 여주의 시작과 같이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소식을 펴냅니다.  
여주 시민과 함께 생활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꾸리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마음가짐을 <여유>에 담아 전합니다.



## 이야기 하나. 여주와 여유

**04 창간 특집**  
〈여유〉 창간을 축하하며

**06 여주의 그림**  
나의 집, 예술이 되다

**10 기획 특집**  
여주 시민의 문화생활과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역할  
- 여주시 문화지표 조사를 중심으로



## 이야기 둘. 여주 사람, 여주 문화

**18 여주인**  
도애가 이양재, 자연에 안겨 자연을 담다  
강천면민 김화자, 고된 언덕 넘어왔어도 행복한 내 인생  
농부 조용삼, 밭살 좋은 여주 땅에 화답

**30 예술 교과서를 펴고**  
뮤지컬 <1446>, 포용의 길을 묻다

**34 여강길 이야기**  
해월 최시형, 한울과 같은 마음 여강에 흐르니

**38 이 한 장의 사진**  
옛 사진으로 보는 그곳 - 영릉, 신륵사 나루터, 여주대교

**40 여주 테마 기행**  
여주의 시간을 품은 나무의 공간들 - 해평 윤씨 고택, 황학산수목원, 목야박물관

**46 세종 이야기**  
한글의 우수성과 보편적 가치

## 이야기 셋. 우리 곁에 여주세종문화재단

**52 만나보기**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연습 현장

**56 다시보기**  
〈어반브레이크 2021〉 현장 취재  
〈하문드오르간의 항해〉 현장 취재

**62 들єдна보기**  
여주세종문화재단 공연·교육·학술대회·문화 행사·축제·전시·자동차영화관·공모전

**68 여주의 창**  
독자 후기+설문 이벤트  
창간호 <여유>를 만든 사람들



<여유>를 펼치며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생활문화예술 매거진  
<여유>(驪遊, YEOYOU)를 펴냅니다.



여유(驪遊)는  
검정 말의 땅, 여주에서  
내 안에 있는 흥을 맘껏 풀어내어  
한데 어울려 한판 놀아보자는 의미를 담습니다.

<여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활동을 소개하고  
여주의 구석구석을 조명하는,  
여주에 의한, 여주를 위한 매거진입니다.  
찬찬히 오래 보고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다루어  
여주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여주 시민을 위한 생활문화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여유>를 통해  
여주 시민의 삶에 여유를 더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진심을 담아 바라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김진오

〈여유〉  
창간을 축하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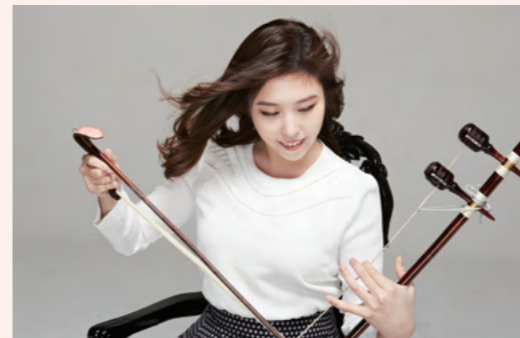
**강다래(농부·주부, 30대)**  
여주시 대신면에 터를 잡고자 3년 전 귀농·귀촌한 강다래(35세)입니다. 현재 백다다기오이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어요. 얼마 전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만들기 활동을 했어요. 팬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좋은 기회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죠. 여주에 귀촌하면서 좋은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 다소 아쉬웠는데 생활문화예술 매거진 <여유>를 통해 '배움'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주에 사는 많은 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접하며 성장하고 마음의 휴식과 위안을 얻으며 멋진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박희주(주부, 40대)**  
여주에 살기 시작한 지 어느새 10년이 넘었네요. 새댁으로서 여주에 입성해 이제는 주부 8단(!)이 됐죠. 전 세계 주부보다는 총지배인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싶어요. 제 아들 매니저로도 열심히 활동 중이죠. 총지배인이자 매니저의 역할은 참 어렵습니다. 매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마음이 지치기도 쉬워요. 하지만 전 좋은 공연을 보며 지친 마음을 달랠어요. 경기도권 여기저기서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좋은 공연 뒤에는 늘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의 소식에 귀를 쫓긋하는 열성 회원이 됐죠. 매거진 <여유>는 인쇄 매체로 발간되니 웹상에서 접하는 매체와는 또 다른 매력과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술인들의 다양한 작업을 소개할 인터뷰가 기대돼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은 그야말로 대중문화계 스타부터 실험적인 소극단까지 전전후로 아우르니까요. 앞으로 여주판 '유 퀴즈'를 기대해볼게요.



**안은형(플로리스트, 20대)**  
여주시 현암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플로리스트 안은형(28세)입니다. 여주에 꽃집을 연 지 3년째네요. 여주 관내 학교의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수업도 하고, 여주 시민과 함께하는 꽃꽂이도 진행하고 있어요. 여주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혜택을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마련해줘서 좋아요. 뮤지컬과 전시회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예술적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소중하답니다. 특히 자동차영화관이 기억에 남아요. 팬데믹으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활력을 주었거든요.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에서 다양한 체험도 매년 즐기고 있어요. <여유>라는 제호를 통해 '여주'를 떠올려봤어요. 여주에는 그야말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강천보, 당남리섬, 신록사, 영릉 등 아름다운 여주의 면모를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여주 시민이 초록의 자연을 만끽하고 알록달록한 꽃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황경화(전통예술, 30대)**  
해금 연주자로 활동하는 황경화(34세)입니다. 여주시에 소재한 국악 예술단체 '해피터치'를 결성해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해금 지도부터 재능 봉사, 공연 기획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공연 활동에 어려움이 많지만, 여주세종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문화가 있는 날'이나 기획 공연 등을 통해 여주 안에서도 문화예술을 만날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술인이자 관람객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하고 있죠. 앞으로 <여유>가 여주 시민의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예술적 경험을 통해 지친 삶을 위로받고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주 시민의 다양한 이야기도 담고 문화예술 정보도 많이 알려주세요.



**강경호(교사, 50대)**  
예술가들이 뿜어내는 향기를 곁에서 즐기고 싶고, 여주의 문화예술이 나날이 발전하길 바라는 여주 시민 강경호입니다. 저 또한 여주의 문화예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목조각도 열심히 배우고, 지역 전시회나 공연도 찾아가고, 해마다 지역 도공들의 작품을 구입하려 눈여겨보고 있지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행보 중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재단이 준비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부채를 만들고 비데만 워크숍을 통해 그림도 그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 것 같아 여주 시민으로서 기쁩니다. <여유>를 통해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만들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알고 싶은 예술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지역 예술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사랑과 연대를 키우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정민세(도예가, 50대)**  
여주시 오학동에서 27년간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이자 캘리그래퍼로 활동 중인 정민세입니다. '세종한글포럼 정기 회원전'을 열어 여주세종문화재단과 연을 맺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2020 어반브레이크>의 여주 작가로도 발탁돼 서울과 여주에서 전시회를 여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생활문화예술 매거진 <여유>를 창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쁩니다. 앞으로 여주의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실어 날라 여주 시민이 생활문화예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주 곳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작업 중인 지역 예술인과 문예인을 소개해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여유>가 시민이 문화를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매체라는 훌륭한 도구로써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유>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 나의 집, 예술이 되다

지난 2019년 10월 22일(화) 여주시 대신면 송촌3리 아미마을에서 특별한 북 콘서트가 열렸다. <나의 집, 예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송촌3리 아미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한 생활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작품이 발표된 것. '송촌3리 나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아미마을>과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그린 '나의 집, 예술이 되다' 달력이 발간됐다. 아미마을 어르신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냈다. 또한 평생을 살아온 '나의 집'을 그려 발표했는데, 순수함과 진심이 전해지는 그림에 관람객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생애 처음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한 아미마을 어르신들은 북 콘서트에서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둘러본 뒤, 이를 한데 엮어낸 그림책과 달력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행복감을 표현했다. 발표된 작품들은 이후 자리를 옮겨 송촌초등학교 북 콘서트와 원화 전시회, 대신도서관, 여주시보건소, 작은 책방 중 하나인 '여주시민 그림책방' 등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나의 집, 예술이 되다> 행사 관련 참여자는 2,340명에 달했고, 7회에 걸쳐 전시를 열었으며, 2종의 그림책 130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기록을 세웠다. <나의 집, 예술이 되다> 프로젝트는 인문 공동체 '책배여강'이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김옥순 <우리 집은 어머니가 유명해>



원복례 <우리 집은 꽃도 많고 나무도 많아>



홍순남 <우리 집은 담도 없고 대문도 없어>



이종우 <너무 예쁜 집이야. 자식들이 싹 고쳐줬어>



윤경숙 <검둥이하고 그냥 사는 편한 집이야>



이복남 <우리 집은 연탄광이 있어>



이옥연 <우리 집은 우스워요>



유춘자 <우리 집은 난 하나도 안 멋있어>



김순자 <우리 집은 산이 많아, 향아리도 많아>



# 기획 특집

10 기획 특집  
여주 시민의 문화생활과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역할  
- 여주시 문화지표 조사를 중심으로

# 여주 시민의 문화생활과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역할

- 여주시 문화지표 조사를 중심으로

여주는 경기도에서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이자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시다.

이를 반영하듯 여주 시민은 여주의 이미지를 '역사 도시', '환경생태 도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2021 여주시 문화지표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여주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알아보고, 시민과 예술 종사자,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서술했다. 이를 통해 미래 여주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 넘쳐나는 문화유산, 갈 곳 없는 여주 시민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최근 진행한 '여주시 문화지표 조사'<sup>1)</sup>에 따르면 여주의 도시 이미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47.4%는 '역사 도시'를, 20.8%는 '환경생태 도시'를 떠올렸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된 분야를 묻는 말에도 '역사 문화'(42.8%), '생태환경 보전'(39.8%)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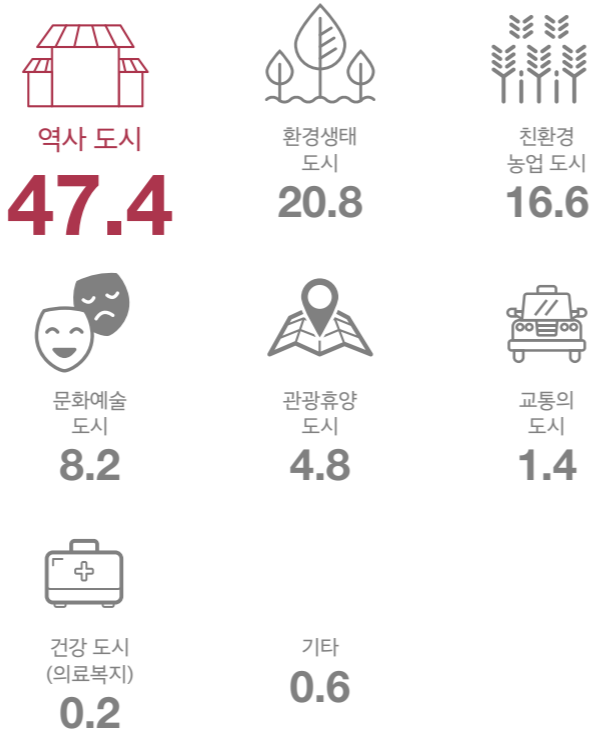
이러한 여주 시민의 의식 동향은 비단 이번 문화지표 조사에서만 확인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진행된 '여주 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민의식 조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주최한 2020 한글날 학술대회

## '여주' 하면 떠오르는 도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 n=500, 단위: % ]



1) 2021년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여주세종문화재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여주 시민 500명, 여주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과 관계자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1:1 대면 면접 조사를 진행함. 표본오차는 일반 시민 95% 신뢰 수준에서 ±4.4%p, 예술인과 관계자 95% 신뢰 수준에서 ±10.8%p.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사에서 여주 시민은 우리 시의 발전 동력으로 '풍부한 역사 문화유적'과 '우수한 자연 및 생태자원'을 꼽았다. 2020년 여주 시민 2,0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주시 주민 행복도 조사'에서도 여주 시민은 '문화유산'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자연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 흐름과는 달리 여주 시민의 생활은 역사문화유적과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 이번 문화지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여주의 문화유적지 방문 경험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72.2%는 '없다'고 답했다. 시민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길 만한 장치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여주는 사회 교과서야나 나올 법한 동네'라고 표현했다. 자긍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루함이 더 크다고도 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은 여주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연 유산을 가까이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원은 많은데 이를 시민의 문화생활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문가들도 '문화유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문화지표 조사 중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주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문화지표 1순위로 전문가들은 '문화유산'을 꼽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지표 발전의 중요한 항목으로는 '문화유산의 지속성'을 꼽았다. 문화유산은 여주시의 특화된 강점이고 이를 살리는 방향의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노인 인구가 많은 여주에서 역사 문화자원과 건강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년 넘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용인문화유적 투어'<sup>2)</sup>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주 못지않게 많은 유적을 보유한 용인은 오랫동안 난개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농 간 문화 격차도 심해졌다. 이에 용인문화원은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지역문화 바로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시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해마다 6,000~1만여 명이 참여하는 인기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주말 가족 단위 운영이 기본이며 학교, 관공서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진행된다. 해마다 새로운 코스를 발굴해 한때는 테마 코스 포함 총 11개 코스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코로나 19로 권역별 4개 코스만 운영하고 있다. 탐방 코스에는 용인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문화유적을 비롯해 각종 박물관, 체험관, 테마파크를 결합해 과거와 현재를 두루 살피게 했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를 더했다.

여주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유산을 시민의 문화생활과 이어준 좋은 사례로 '여강길'을 들 수 있다. 여강길 걷기는 남한강이 빚어낸 여주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각종 문화유적, 여강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 여주 시민의 삶의 역사를 접할 기회임과 동시에 걷기의 운동 효과와 코스 완주의 성취감까지 덩어리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따라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각종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결합해나간다면 여주의 강점을 잘 담아낸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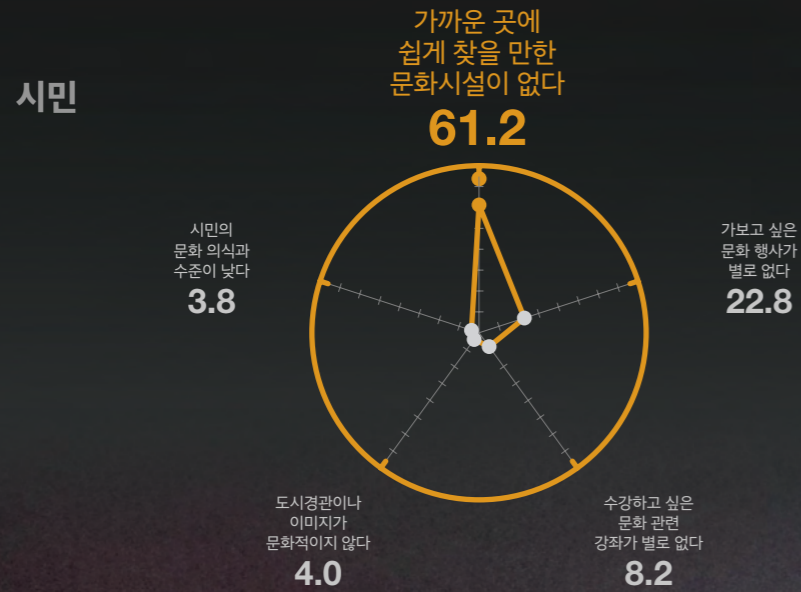
## 여가 시간엔 TV와 낮잠, 여주 시민은 심심하다

이번 문화지표 조사에서 '문화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 '문화 행사에 가는 것', '여행을 다니는 것' 순으로 답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니 응답자의 대다수가 TV 시청(67%)과 휴식·낮잠(58.8%)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중복 응답). 영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문화 행사 관람은 4%에도 못 미쳤고, 문화예술 관련 강좌 수강 경험도 대부분의 항목이 1%대를 기록했다. 문화 동호회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도 5.4%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생활 전반이 침체된 영향도 없지 않겠지만 그 이전에도 여주 시민의 문화예술 관람 등의

2) <용인학 운영실태와 과제>(2018. 김창환) 참고.

여주의 문화 기반과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 n=82, 단위: % ]



여주의 문화 기반과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 n=82, 단위: % ]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주 시민은 능동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요약하자면 기회·정보·시설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여주 시민은 문화예술 행사나 교육을 선택할 때 '프로그램 자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그 내용과 수준, 다양성 등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 관내 시설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 합치면 270개에 달하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거기서 거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주 시민은 문화 기반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가까운 곳에 쉽게 찾을 만한 문화시설이 없다'(61.2%)를 꼽았다. 지난해 주민 행복도 조사에서도 의료·복지·보육·교육 관련 시설보다 문화시설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바 있다. 문화생활 관련 정보를 지인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홍보의 부족도 느껴진다. 이처

럼 여주 시민은 다양한 문화 행사나 교육을 본인의 요구에 맞게 선택하고 접근할 기회와 방법, 조건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관련 항목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도 몇 가지 있다. 시설 이용 경험과 만족도 모두에서 노인복지관이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는 것은 고령화 도시인 여주의 문화 프로그램이 노인복지 영역 차원에서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술관 이용

만족도 100%라는 조사 결과로는 2019년 개관한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가 시민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은 도심보다 읍면 지역의 문화생활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은 여주시 안에서 가족 단위로 즐길 거리, 즐길 곳이 없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높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과제를 던져준다. 문화시설 이용 행태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하겠다.

### 문화재단, 문화 자원과 시민 생활 연결해주는 다리 되어야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최근 몇 년간 여주의 역사, 사람, 마을, 축제, 도자기 등 지역문화의 기반이 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수집해 자료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주 시민과 예술인들이 여주의 문화예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제 이 자료들을 토대로 여주의 문화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가야 한다.

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채워줄 '콘텐츠'도 잘 준비해야 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지만 알차게 이끌어갈 '사람'도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여주 문화 발전을 위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1순위로 '문화예술인의 활발한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을 동시에 꼽았다. 하드웨어만으로는 문화 발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지역 예술가와 시민의 창작 활동 지원이 뒷받침돼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3박자를 고루 준비해야 지속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하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 3박자가 잘 맞물리도록 하는 지휘자의 역할이 바로 여주세종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적인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 성과가 시민 속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술인, 문화 활동가, 정책 전문가, 주민조직, 마을공동체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양질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문화지표 조사에서는 사례 조사도 실시했는데 여주와 규모가 비슷한 여러 시설과 기관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와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홍보 및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일회성 강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동호회나 소모임을 구성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문화재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층에서 동호회 경험도 많은 것으로 볼 때 재단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 더 많은 시민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재단의 지원 아래 성공적인 동호회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여주



시 예술인들이 강사 활동이나 동호회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예술 동호회나 소모임이 활성화되면 시민 예술 역량이 강화되고 창작 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도 가능해진다. 다양한 분야의 지역 예술인들이 강사 역할을 하며 시민 속으로 들어갈 기회도 확장될 수 있다. 주민이 자기 지역과 생활을 소재로 직접 창작해낸 콘텐츠를 모아내고 채워나간다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주민 주도의 다양한 축제의 장도 마련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인지도(일반 시민 15.4%, 예술인 76.8%)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 하는 일에 비하면 아쉬운 평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재단의 활동이 아직 시민과 예술인들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주가 보유한 문화유산과 지역 예술 역량을 찾아내는 데 힘을 기울여온 재단이 이제 그것을 여주 시민의 삶과 구체적으로 이어주는 역할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여주 문화 발전을 위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n=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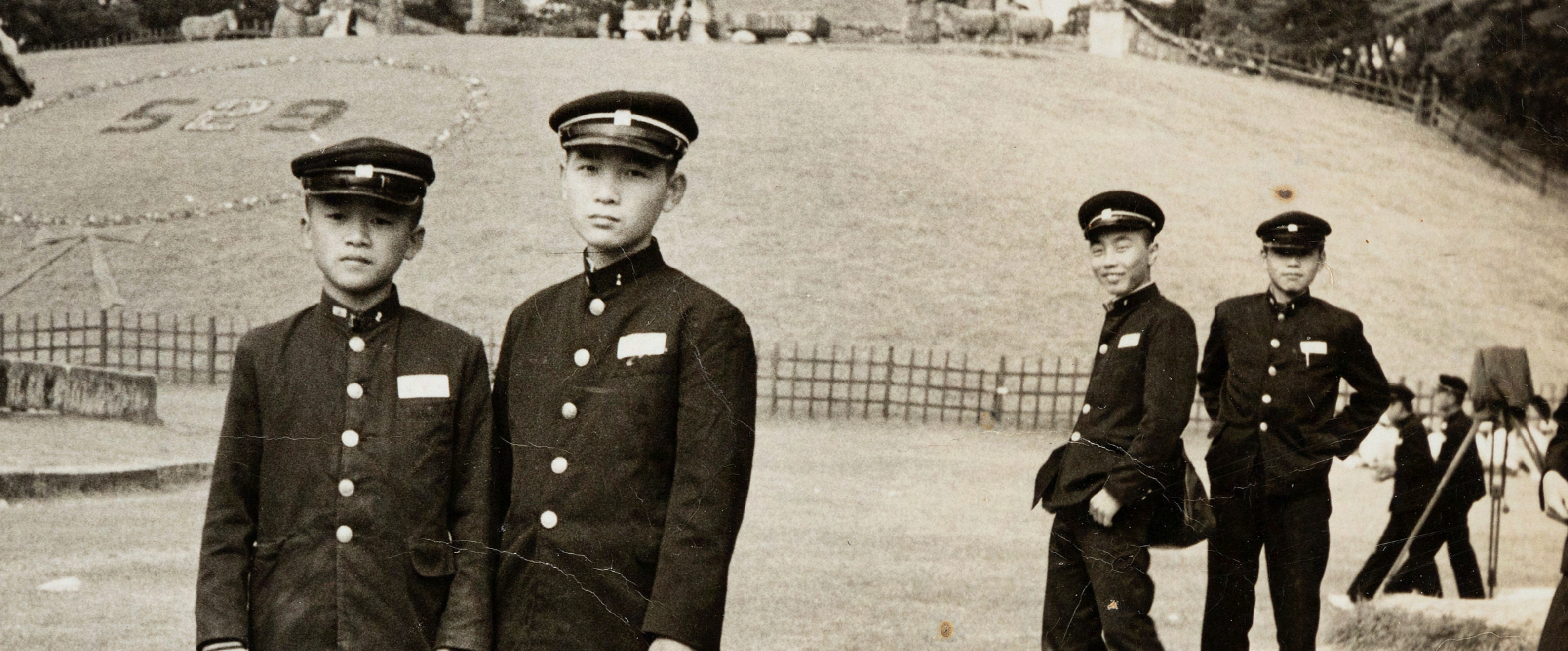
여주 문화발전을 위해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인의 활발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해 주민 행복도 조사에서 이천시와 가깝고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가남읍 지역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타 시군의 다양한 문화시설에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시설과 프로그램인데 그나마도 이용률이







# 이야기 들. 여주 사람, 여주 문화

- 18 여주인  
도예가 이양재  
강천면민 김화자  
농부 조용삼
- 30 예술 교과서를 펴고  
뮤지컬 <1446>, 포용의 길을 묻다
- 34 여강길 이야기  
해월 최시형, 한울과 같은 마음 여강에 흐르니

- 38 이 한 장의 사진  
옛사진으로 보는 그곳
- 40 테마 여주 기행  
여주의 시간을 품은 나무의 공간들
- 46 세종 이야기  
한글의 우수성과 보편적 가치



## 자연에 안겨 자연을 담다

도예가 이양재

이양재 도예가를 찾아간 날엔 늦깎이 장마의 기세가 대단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커피나 한잔하자며 그는 손수 커피를 만들었다. 도예가의 커피는 예사롭지 않았다. 여러 원두를 섞어 직접 볶고, 갈고, 핸드드립으로 정성껏 내렸다. 그렇게 완성된 커피가 그가 만든 커피 잔에 담겼다.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커피 향은 그윽했다. 여주시 강천면 자연 품에 안긴 한적한 도예 공방에서 이야기는 시작됐다.



오랫동안 물레를 차운 이양재의 손끝에서 금세 흙덩이가 생명을 얻는다.

### 여주가 좋아 강천면에 정착해 공방은 직접 지었죠

세삼스러운 것도 없다. 여주 하면 누구나 바로 도자기를 떠올리지 않나. 여주는 양질의 고령토와 가마 불을 때는 소나무, 깨끗한 물 등 좋은 도자기가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명성은 기원이 오래돼 고려시대 가마터가 25개나 남아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백자가 처음 시작된 곳도 바로 이곳, 여주다. 그렇다고 모든 도예가가 여주에 터를 잡는 것은 아닐 터. 이양재 도예가는 왜 이곳 여주를 선택했을까?

“처음 홍대 앞 5층 건물 지하에서 개인 작업장을 시작했다가 후에 양평에 있는 방앗간 터를 얻어 조금 큰 가마를 만들었죠. 양평에서는 여주가 가까워 여주에 있는 재료상을 이용

했는데, 어느 날 여주에 왔다가 월세도 싼 데다 큰 가마도 제공해준다는 광고를 봤어요. 가보니 대형 작업도 가능한 큰 가마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여주에서는 도예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 너무 편해요.”

여주에 동지를 틀기로 했지만, 공방 지을 곳을 찾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오래 공을 들여 찾은 만큼 ‘이양재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내걸린 곳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잔디밭 뒤로 앉은 하얀 세모 지붕 집은 살림집이자 전시관이고, 그 옆에 돌과 나무로 지은 운치 있는 건물은 공방이다.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커다란 통유리창과 차곡차곡 쌓아 올린 돌의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방. 어딘지 모르게 투박하지만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이곳은 그가 지인과 함께 직접 지었다. 공방은 실제 도자기 작업을 하는 작업실과 연결돼 있다. 가마와 물레, 초벌·재벌한 도자기들이 자리 잡은 작업실을 구경시켜주다 “비 오는 날엔 원래 물레를 차지 않는 데...”라며 그가 잠시 물레 앞에 앉는다. 그러더니 금세 그의 손에서 찾잔 하나가 생겨난다. 도자기 만드는 체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흙덩이가 온전한 그릇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 공을 들여야 하는지. 이양재의 마법 같은 손길은 그가 얼마나 도를 닦듯 오랫동안 물레를 찼을지 짐작케 한다.

### 현대에 어울리는 그릇을 만들고 싶었어요

도예가 이양재는 백자를 만든다. 백자 중에서도 청색 문양이 도드라지는 청화백자가 대부분이다. 눈처럼 흰 백자에 동해 바닷물처럼 질푸른 선이 유연하게 춤을 춘다. 선들은 산과 강, 꽃이 되고 새가 되고 물고기도 된다. 그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은 무늬들은 밥그릇과 국그릇, 술병과 술잔, 접시, 찻잔, 꽃병 속에 자리해 사람들의 식탁과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백자는 오래된 유산인데, 그렇게 그가 무늬를 그려 넣은 청화백자는 유난히 현대적이고 세련돼 보인다. 아마도 그가 걸어온 길 덕분이라고 지레짐작해본다.

그는 홍익대학교 디자인과를 4학년까지 다니다 도자기와 흙에 매료돼 도예과에 입학해 1학년부터 도예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에 유학했고, 유럽을 돌며 각 나라의 도자기를 참 많이도 찾아다녔다.

“단순한 내 드로잉 스타일이 청색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때 실습 삼아 청화, 철화, 상감 등 모든 기법을 해봤지만 그때는 좀 막연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만난 도자기

중에 특히 로열코펜하겐이나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청화백자의 자유스러운 기법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청화 작업에 몰두했죠.”

그렇게 ‘청화백자와 선 드로잉’이라는 이양재 스타일의 도자기가 탄생한 지 20여 년. 요즘 그의 작품에는 유독 닭이 많이 눈에 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닭처럼 조형성이 뛰어난 소재도 없다고. 한때 닭을 10마리나 키웠지만, 족제비가 모두 잡아먹어 버렸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는 공방 문을 열고 나가면 마주치는 주변의 모든 것이 작품의 소재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공방 옆 전시장에선 그가 그렇게 일상에서 헤안으로 포착한 다양한 소재로 탄생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청화백자에 몰두하기 전 작업했던 달항아리, 철화백자 등도 자리해 그동안 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엿볼 수 있다.

도자기는 다른 예술 작품과 달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양재는 감상하는 작품보다 실생활과 어우러지는 그릇에 더 가치를 둔다. 11회의 개인전과 100여 회의 그룹전, 뉴욕과 파리 등지에서 전시를 여는 동안 그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릇 제작에 몰두하는 건 도자기의 본질은 그릇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쓰는 그릇에 미감으로 조금만 포인트를 주면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릇

01 그는 주로 청화백자를 빚는다.

02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물이 그의 작품 소재가 된다.

03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의 일상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도예가 이양재

01



02

“도자기는 스포츠와 달리 젊을 때 잠깐 승부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인생과 경험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스피드를 강조하는 요즘, 많은 실패와 노력을 통해 완성되는 도자기는 천천히, 조용히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죠. 제 나이 예순셋이에요. 지금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룬 절정의 시간이자, 다시 시작하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을 만드는 것이 어렵더군요. 작품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그릇은 정해진 형태를 갖춰야 하니깐요. 옛 도공들은 어려서부터 쪽 그릇을 만들었고, 기형을 변형시키지 않아 쉽게 만들었지만 저에겐 쉽지 않았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 현대에 어울리는 그릇을 만들고 싶었고, 지금껏 그렇게 작업하고 있죠.”

### 지금이 절정의 시간이자, 다시 시작하는 나이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도예가에게 기쁜 일이 또 있을까? 그러나 그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작품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코로나19로 전시, 축제 등이 모두 취소나 연기되다 보니 작품을 제작할 동기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도예 작품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대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미술품은 온라인을 통한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도자기는 직접 눈으로 봐야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저렴한 가격의 공장 제품은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겠지만 귀한 도예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선뜻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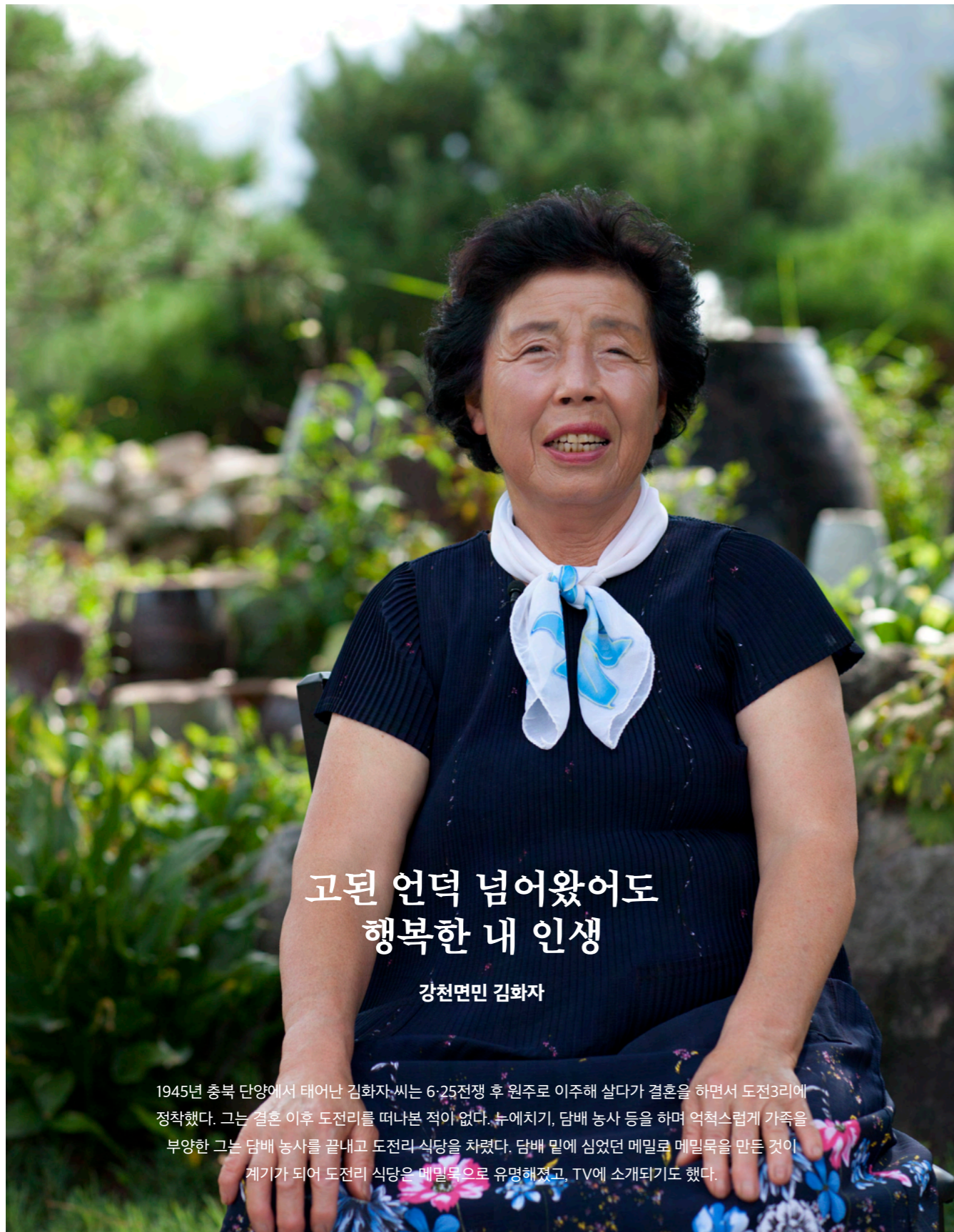
점점 후배가 없어진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대학에서 도예과는 점점 줄고 있다. 젊은이들도 경제적 보상이 약속되지 않는 힘든 일에 자청해 뛰어들기란 쉽지 않을 터. 그럼에도 작업 환경이 다른 곳보다 좋고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이곳 여주에 젊은 도예가가 많이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자기는 스포츠와 달리 젊을 때 잠깐 승부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인생과 경험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스피드를 강조하는 요즘, 많은 실패와 노력을 통해 완성되는 도자기는 천천히, 조용히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죠. 제 나이 예순셋이에요. 지금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룬 절정의 시간이자, 다시 시작하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생각지도 않은 팬데믹까지 겹쳐 예술가는 더욱 힘든 시절이다. 그는 스스로 좀 게을러진 느낌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도 매일 물레 앞에 앉는다. 그의 손 끝에서는 오늘도 흙에서 생명을 얻은 작품이 탄생하고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이 긴 터널 같은 시기를 지나 그의 작품이 여주시 강천면을 벗어나 전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들의 공간과 일상을 아름답게 채우길 바라본다.

03





## 고된 언덕 넘어왔어도 행복한 내 인생

강천면민 김화자

1945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난 김화자 씨는 6·25전쟁 후 원주로 이주해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도전3리에 정착했다. 그는 결혼 이후 도전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 뉴에치기, 담배 농사 등을 하며 역척스럽게 가족을 부양한 그는 담배 농사를 끝내고 도전리 식당을 차렸다. 담배 밭에 심었던 메밀로 메밀묵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되어 도전리 식당은 메밀묵으로 유명해졌고, TV에 소개되기도 했다.



처음 얼굴을 본 신랑과 찍은 약혼사진

### 젊을 땐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김화자 씨는 21살 때부터 여주에서 살았다. 원래 고향은 단양 영춘면. 6살 때 6·25 전쟁이 나서 여기저기 피란을 다니다 먼저 원주에 정착했다. 다섯 남매였는데 큰오빠는 의용군에 끌려가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언니는 결혼했고, 원주에 취직한 형부가 원주가 살기 좋다 해서 김화자 씨 어머니가 남매들을 데리고 원주로 이사를 했다.

“원주 판부면, 거기 뒤에는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 옆에다가 하꼬방(판자집)을 지었어요. 그때는 살기가 너무 막막했으니까. 치악산에 가서 오빠들하고 나무를 해다 밥만 익혀서 먹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두부 공장 직원들과 함께(맨 오른쪽)

군불이라는 거는 모르고, 옹기종기 모여서 자고. 오빠 둘은 나보다 두 살, 다섯 살 위인데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오빠는 냇가 옆 공터에 군인들이 세차하러 오면 대신 차를 닦아주고 쌀을 얻었어요. 자기들이 닦아야 되는데 손 시려우니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오빠들이 차 닦고 쌀 얻어먹었다는 게.”

전쟁 후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던 김화자 씨는 17살에 두부 공장에 취직했다. 덕분에 두부나 비지도 얻을 수 있었고 월급을 받으면 쌀을 반 가마 정도는 살 수 있어 생계에 보탬을 줄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덧 그도 시집갈 때가 됐다.

“근데 21살이 되니까 시집갈 때가 됐잖아요. 그때 내가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생각하실 때 여기에서 시집보내면 까딱하면 남의 첩으로 갈까 봐 안 되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 하나 좋다는 거, 괜찮다는 것만 알지. 그때 옆집에 살던 사람이 군화, 옷, 코트 같은 거 팔고 그랬어요. 그때 물건 떼러 왔던 이가 나를 보고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 싶어서 오빠가 장가를 안 가고 둘 있어도 중매를 선 거예요. 그냥 엄마가 그 사람 말을 딱 믿고 양반이고, 고지식하다 그러니까 승낙을 했어요. 신랑을 좀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바깥 양반이 이십 리를 고개를 걸어서 넘어왔어요.”

### 처음 본 날 약혼, 참 옛날이야기 같죠

방 하나에 살던 시절, 미닫이문을 열고 김화자 씨는 장래 신랑의 얼굴을 봤다. 말하자면 선이었다. 한 10분 정도 있었을까? 그 짧은 만남으로 두 사람은 약혼을 했다.

“신랑 되는 사람보고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좋아요’ 이랬어. 그리고 나한테 ‘넌 어떠냐?’고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못 했지. 그랬더니 ‘됐다’ 이래서, 단구동 그 앞에 가면 사진관 새로 생긴 데가 있었어요. 사진 찍자고, 약혼 사진을 딱 두 장 찍어버린 거예요. 처음 본 날, 참 옛날얘기 같죠. 약혼 사진을 찍으면 그게 약혼식이 되는 거야. 빵집에 가서 빵도 하나 먹고, 뭐 그때는 짜장면이 있었는

지 없었는지 그건 몰라도 빵집이 유행이었어요.”

약혼 예물은 화장품 한 갑. 한 달 뒤 김화자 씨는 도전리로 시집왔다. 산 고개 외판집, 시부모와 시조부모까지 있는 집이었다.

“결혼식은 시집에서 족두리 쓰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죠. 양동에나 사진관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결혼식 사진 찍고 다 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는 아들 하나라고, 소 팔아서 금반지 하나, 시계 하나 해주고, 반짝이 옷 그때 처음 나왔었어요. 그것도 다 해줬어요. 그렇게 잘 해줬어요.”

시댁에서는 김화자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시댁 소유는 아니었지만 약 6,600~9,900m<sup>2</sup>(2,000~3,000평) 되는 밭에 밀보리를 심어 여름에는 국수, 보리밥을 해 먹어 배는 굶지 않았다. 여름에는 아침, 점심으로 콩보리밥을 먹고, 저녁에는 국수를 먹었다. 결혼했으니 이제 혼인신고도 해야 할 터. 그런데 김화자 씨는 혼인신고를 하려다 기막힌 경험을 했다.

“결혼할 때 동네 사람이 와서 보더니 다 수군거리는 거야. ‘짜이 기웁어서 못 산다고, 어떻게 저런 색시가 와서 사냐’면서.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부러워서 저런 머느리 봤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기도 했나 봐. 그렇게 내가 이런 데로 시집을 왔으니까, 이 집에서 겁이 나니까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

서 한 달 만에 서둘러서 혼인신고를 하더라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웬걸. 우리 신랑이 여자로 돼 있는 거요. 옛날에나 나올 얘기지.”

사연인즉슨 이랬다. 김화자 씨 신랑이 태어나자 시아버지가 동네 구장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했다. 그런데 구장이 김화자 씨 신랑을 여자로 신고한 것이다. 서류상으로 여자끼리 혼인 신고가 될 리 만무했다. 지금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만, 당시로선 최고의 선택이 사망신고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장이 사망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을 사망신고를 했어요. 그때는 면사무소하고만 이야기만 잘하면 됐나 봐. 그래서 구장 말이면 돼가지고 했지. 사망신고를 하고 우리 남편이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 끼니때마다 밥상을 세 개씩 차렸어요

그렇게 기막힌 과정을 거쳐 혼인신고를 하고 김화자 씨의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댁 식구들은 ‘양반 집안’이었다. 가족들은 항상 하얀 저고리에 바지를 입어 빨래를 쌓아놓았고, 시아버지는 콩보리밥이 싫다고 하루 세끼 국수를 달라고 하셨다. 밥상은 끼니때마다 따로 세 개씩이나 차려야 했다. 그렇게 살며 김화자 씨는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낳았다.

“아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포대기 하나 하고 기저귀 하라고 소창 반 필을 사 왔어요. 근데 소창은 두고 아껴서 친정에 갈 때나 그거를 쓰고 광목 자루, 옛날에는 그거를 사다가 잣물에 삶아가지고 자꾸 씻고 별에다 놓으면 다 바래져. 기저귀가 때 깔이 왜 안 나느냐면 잣물을 사다가 쌀겨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요. 그거를 가지고 빨래를 하면 때는 잘 가요. 근데 색깔이 뽀얗지가 않아. 누리퀴퀴해. 또 시할아버지가 하얀 바지저고리를 입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보수적이라 검은 바지를 안 입어요. 꼭 흰 바지만 입고, 눈에 갈 때도 입고 나가고, 그렇게 입다 보니 옷을 기워서 입게 되잖아. 증의적삼 같은 거 기워서. 그렇게 쪼갠 거 가지고 요령껏 잘라서 기저귀를 만들어 입혔어. 엄마가 사다 준 거는 아끼다가 어디 갈 때만 쓰고, 우리 엄마가 내가 어떻게 사나 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는 도전리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김화자 씨

러 왔다가 아주 후회를 하시는 거야. 괜히 이리로 시집보냈다고. 맨날 빨래만 하고 고생만 하나까. 군인 가족은 나이가가라 치마저고리 입고 뽀얗게 잘 다녔는데. 나는 일만 하나까 아주 보기가 안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올 때마다 울었다는 거야.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 일, 즐기며 살면 돼요!

김화자 씨는 억척같이 살았다. 그러다 시댁에서 분가해 마을로 내려오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에를 치기 시작했다. 누에를 치면서 땅도 사 모았다. 누에가 시들해지자 담배 농사를 시작했다. ‘양반’인 남편은 천식 기가 있어 힘든 일은 할 수 없었다. 그래도 힘을 쓰지 않는 일에는 도움을 주었다. 담배 농사를 접고 식당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돈 모으는 재미에 몸 아픈 줄도 몰랐다. 식당이 잘돼 나중에 부부가 편안하게 살려고 한옥도 새로 지었다. 그러나 남편은 좋은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남편 대신 도전리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다. 김화자 씨는 이야기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래서 일을 즐기며 살면 된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은 작은 재산이고, 건강은 큰 재산이다. 이 좋은 세월 잘 살아야 될 텐데 몸이 아파 병들면 그건 네 몫이지 딴 사람 몫이 아니다. 누구든지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를 위해 살라고, 아끼지 말고, 자기 몸이랑 건강을 위해서 살라고, 아동바등한다고 돈 모아주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은 듣고 싶어. 젊은 사람에게 좀 도움 되는 말해주고 싶은데, 나 자신을 위해 한마디 해봤어요.”

2015년 식당을 며느리에 물려준 그는 지금도 식당 일을 돕고 농사를 지으며 일을 쉬지 않는다. 힘들게 긴 세월을 지나왔지만 김화자 씨의 표정에는 그늘이 없다. 마음이 누구보다 넉넉한 부자여서가 아닐까?

\*김화자 씨 이야기는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총서, 《여주를 담다 삶을 기록하다》 강천면민 편에서 발췌·수록했습니다.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은 여주 시민의 생활과 삶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잊혀가는 여주의 기억과 모습을 기록하고자 기획했습니다.



도전리 식당은 메밀묵과 백숙으로 유명하다.

# 밭살 좋은 여주 땅에 화답

농부 조용삼

도시내기에게 '농부'란 그저 '농사짓는 사람'으로 단순히 갈무리되지만, 사실 이 말 켜켜이엔 수많은 결이 숨어 있다. 온 나라 구석구석 흙이 다르듯,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작물 또한 얼마나 많을 것이며, 저마다의 생애적 이치를 알고 살뜰히 키워내는 농부들은 또 얼마나 무수하겠는가? 그를 만나고 알게 됐다. '농부'는 다 같은 농부가 아니며, 모두 특별하다는 것을.



01



02

01 조용삼 씨가 정성껏 키우고 있는 검은깨

02 수확을 기다리며 영글어가는 옥수수

## 농부가 되어 흥년 무서운 줄 알았어요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농부 조용삼 씨의 하루는 이곳 약 1만 9,800㎡(6,000여 평)의 밭에서 시작된다. 일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것은 도시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흙을 밟고 하늘을 살피는 것은 농부가 된 후에 몸에 밴 일상이다.

그를 만나러 간 8월 말 무렵, 너른 밭에는 검은깨, 옥수수, 토종 찰옥수수, 수수가 제각각 저마다 터를 잡고 자라고 있었다. 농사는 전혀 모르는 도시내기인지라 '토종 찰옥수수'가 낯설어 물어보니, 다른 옥수수와 달리 늦여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옥수수란다. 전라북도 고창에 계신 어머니가 심던 씨앗을 받아 10년 넘게 심고 있는데, 크기는 일반 옥수수보다 작지만 그 맛이 일품이라고. 대추방울토마토와 더불어 토종 찰옥수수는 그의 작물 중 이른바 '히트 상품'이다. 또 다른 밭 한편에는 얼마 전 수확을 마친 알이 굵은 땅콩도 눈에 띈다.

조용삼 씨는 키 큰 옥수수밭과 수수밭에선 서서, 키 작은 검은깨밭에선 구부려 눈높이를 맞춰가며 아이 돌보듯 찬찬히

작물들을 살핀다. 그나마 9월 초까지가 1년 중 가장 한가한 시기라며 여유롭게 밭을 둘러보는 그는 지금껏 흙을 떠나본 적 없을 것만 같은 천생 농부의 모습이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귀농인이다. 그가 이곳 여주 땅에 터를 잡은 것은 2005년. 그 전까지 그는 서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하이텔. 거기서 쇼핑몰 개발을 맡았었다.

“쇼핑몰 개발자로 일한 뒤 다른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무얼 할까 고민했죠. 그러다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 농산물을 팔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처남도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하러니 상품 조달이 쉽지 않았어요. 개발자로 일하다 영업, 홍보까지 하러니 체질에도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어 내가 기른 작물을 팔아보자고 마음먹었죠.”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에게 농사는 낯설지 않았다. 그의 귀농 선언에 가족들도 별 반대 없이 따라주었다. 그런데 하고 많은 곳 중 왜 여주를 택했을까? 사실 그는 여주와 큰 인연이 있었다. 바로 아내의 고향이었던 것. 귀농의 여러 어려움 중 하나인 '텃세'는 그렇게 아내 덕분에, 그리고 본인



03

03 막 수확을 마친 땅콩  
04 조용삼 씨는 이곳 여주에서 75살까지 농사를 지을 계획이다.

## 좋은 농사, 나쁜 농사는 없습니다

대추방울토마토, 양파, 감자, 옥수수, 땅콩, 검은깨, 수수, 고구마, 잡곡... 조용삼 씨가 한 해 동안 키우는 작물들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작물마다 씨를 심고 수확할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수입도 주기적으로 들어온다. 농부의 마음은 알 것 같아도 아직 농사를 잘 짓는지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그 계획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친환경 농사를 짓기로 한 것이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친환경을 선택했는데, 이제 와보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기 위해 자연을 착취하기보다 보호해가며 상생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됩니다. 수확을 많이 내는 것은 농부의 중요 덕목이죠. 특히 농업 인구가 적은 현실에서 대량 수확으로 많은 이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선택의 문제일 뿐, 농사에 있어 좋은 농사, 나쁜 농사는 없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다. 돌려짓기가 그 대표적인 예다. 돌려짓기는 이름 그대로 한 밭에서 작물을 돌려가며 키우는 것이다. 고구마를 심은 밭에는 다시 고구마를 심어선 안 되고, 전혀 다른 종을 심어야 한다. 학창 시절 생물 시간에 배운 분류체계인 ‘종속과목강문계’ 중 같은 ‘과’ 작물은 길러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옥수수와 수수, 기장은 같은 과로 피해야 하는 것. 고구마를 심은 뒤에는 땅콩, 그다음에는 감자, 그다음에는 수수를 키우는 식으로, 2년 3기작이나 3년 4기작으로 돌아가며 키우다 보니 작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같은 땅에서 한 가지 작목만 계속 키우면 그 작목이 필요한 영양소만 흡수해 그 영양소가 결핍되고 결과적으로 땅이 황폐화되죠. 또 그 작물을 좋아하는 병해충이 계속 생겨 생산량도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비료를 많이 줘야 하고 농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돌려짓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땅을 아껴가며 아무리 정성껏 키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없으면 소용없었을 터. 그러나 그의 농사는 90%가 계약 농사로 이루어져 판로 걱정은 거의 없다. 그는 한살림 생산자로 수확량 대부분은 한살림과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10%는 소평몰 시절부터 갖고 있던 ‘고객 리스트’를 통해 판매한다. 이제는 단골 고객이 있어 수확 때가 되면 고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한다고. 지금쯤 조용삼 씨 못지않게 토종 찰옥수수가 잘 영글기를 바라는 고객도 제법 많을 듯싶다.

## 일흔다섯 살까지 농사를 짓겠습니다

요즘 귀농을 꿈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자연에 기대어 땀 흘리는 만큼 대가가 있다고 믿어 진입 장벽이 없을 듯싶지만, 조용삼 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일 것이고, 농업기술을 익히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장비는 물론이고 트럭 한 대쯤은 있어야 하고, 인력을 쓸 수 있는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도시 못지않다. 조용삼 씨는 그런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살림 생산자들끼리 공동 농장 활동을 하고, 귀농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제 위로 10여 분이 있는데 70대고, 아래로는 3명 정도뿐이더라고요. 이리다 공동체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공동 농장을 만들어 1년에 30일 정도 모여 함께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귀농 희망자에게 농사를 가르치는 귀농 학교는 올해로 2년 차가 됐어요. 귀농 희망자가 귀농

하면 여주 땅도 소개해주고, 공동체 내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귀농을 결심한 분은 없네요.”

귀농 학교에서 직접 농사를 체험하고 난 후 농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면 절대 못 하겠다고 이야기한 참가자가 있었다는 걸 보면, 역시 농부는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싶다. 그런데도 조용삼 씨는 75살까지는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한다.

농사지으며 한편으로 ‘한 바구니 농부’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활동도 꾸준히 하는 그는 이제 큰 욕심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평당 매출 1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의 목표가 꼭 이루어지길 응원해본다. 한 바구니만큼의 수확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것 같은 그이지만, 그 바구니가 크고 여러 개가 되어 친환경 농산물을 가득 담아 오래오래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길. 밭살 좋은 여주 땅도 오래도록 그에게 든든한 터전이 되어줄 것이다.

04





## 포용의 길을 묻다

뮤지컬 <세종, 1446>

모두가 세종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조각에 불과하다. 세종을 다룬 콘텐츠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유다. 세자가 되기 전의 삶, 장영실과의 관계는 각각 영화 <왕이로소이다>와 <천문: 하늘에 묻는다>에 담겼다. KBS2 드라마 <대왕 세종>은 긴 호흡으로 일대기를,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욕하는 세종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을 비췌다. 타임 슬립이라는 설정과 로맨스도 세종을 만날 정도니, 이쯤 되면 세종만큼 동시대를 함께 사는 왕도 드물다. 이에 더해 뮤지컬 <세종, 1446>은 세종의 또 다른 면모를 담은 새로운 조각을 제시한다.

### 누가 날 세자라 하는가

<세종, 1446>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창작 뮤지컬로, 2017년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초연됐다. 역사 속 인물을 다룰 때 다수의 콘텐츠가 연대기적 구성을 취한다. <세종, 1446> 역시 세종의 40년을 충녕대군 시절, 왕권 강화기, 훈민정음 창제 3단계로 구분해 설명한다. 대신 업적보다는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관객이 왕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었던 세종의 다양한 감정을 만나도록 돕는다. 그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제 몸이 망가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옳은 일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인간이었다.

특히 <세종, 1446>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셋째가 왕이 되며 겪는 시행착오에 주목했다. 피로 물든 태종의 용상은 서책을 가까이한 세종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갈등은 끝이 없고, 세종을 믿지 못하는 대신들의 반대는 그를 옹아매는 사슬이었다. 역모의 누명을 쓴 장인마저 구할 수 없는, 왕이 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의 삶이었다. 작품은 수시로 “누가 날 세자라 하는가”라며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는 이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그의 노래는 역사의 무게감을 벗고 동시대 관객과 연결되는 힘이다. 이

도의 정서에 공감한 관객들은 비로소 선왕을 향해 “왕명입니다”를 외치는 세종의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 임금의 일은 백성의 원망 또한 감내해야 하는 것이니

1막은 이도가 권위를 갖기까지의 성장을 보여준다면, 2막은 일하는 왕을 통해 리더의 자질을 묻는다. 세종은 숙청을 통한 태종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자신만의 정치철을 선보인다. 즉위 직후 반대에 부딪혔던 조세 개혁을 단행하고, 능력만 있다면 노비 출신이라도 등용해 함께 일했다. 법전과 농사법, 지도에 이르기까지 백성의 삶에 밀착된 각종 정책을 수립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진족과의 전쟁에서 잘 드러난다. 전쟁 포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는 백성의 반대 의견을 듣고도 “임금의 일은 백성의 원망 또한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을 보여준다. 고려 재건을 꿈꾸는 가상 인물 전해운의 존재도 세종이 보여준 포용의 정치철을 위한 선택인 셈이다.

조선만의 시간과 우리만의 문자 제작은 <세종, 1446>의 핵심



적 사건이다.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대하는 세종의 자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라서다. 각본을 쓴 김선미 작가 역시 시간과 글자에서 “누구도 부술 수 없고, 망칠 수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한” 세종의 노력에 착안해 작품을 완성했다. 세종은 온갖 우려와 비난, 질병 속에서도 자주 국가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작품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1443년이 아닌 반포된 1446년에 방점을 찍는다. 문자의 창조보다 우리만의 글자가 백성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기를 바라는 세종의 간절함과 집요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강인한 왕으로 성장하는 세종, 사운드와 움직임도 달라지다

뮤지컬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묘사하는 음악이다. <세종, 1446>은 태종이 정몽주를 살해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사태의 긴박함과 태종의 잔혹함을 표현하기 위해 기타 리프와 드럼 비트가 강렬하게 등장하고, 그 위로 대금 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이러한 양악기와 국악기의 결합은 <세종, 1446>이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기 이전에, 모두를 아우른 세종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 가깝다.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은 이후로도 줄곧 이어진다. 극 초반의 넘버들에는 불협화음이 많다. 태종의 넘버들은 낮고 음습하며, 변화를 원치 않는 대신들의 노래는 반복적이다. 난해하고 복잡한 코드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부자연스러움이 도리어 어지러운 조선을 탁월하게 그려낸다. 이후 <세종, 1446>의 음악은 세종이 갈등을 딛고 강인한 왕으로 성장하며 밝고 멜로디가 강조된 방식으로 변화한다. 엄숙한 궁중음악과 흥 넘치는 민요의 모티브들은 계급사회였던 조선의 상황을 표현함과 동시에 통합을 시도한다. 배우들의 움직임도 <세종, 1446>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다.

태종과 전해운의 사병들은 절도 있는 안무로 극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특히 조선의 전복을 노리는 전해운과 세종의 호위 무사 윤겸의 대결은 <세종, 1446>의 백미다. 화려한 기타 연주가 더해진 3분가량의 이 장면은 안무라기보다는 실전 액션에 가깝다. 초연부터 윤겸 역을 맡은 배우 이지석이 태권도를 비롯해 전 세계의 전통 무술을 다수 습득한 무예인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움직임이 직선형 액션이라면, 궁녀로 대변되는 여성들의 움직임은 유려하게 표현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훈민정음 창제 과정이다. 하얀 의상을 입은 배우는 마치 세종의 붓이 된 듯 자음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백성을 향한 세종의 마음을 담아 독무를 펼친다. 무대 역시 보개천장과 용상, 계단과 기둥을 이용해 궁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8개의 장지문 패널이 무대 전환을 돕는다.

정비했으며, 관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었다. 조선만의 음악과 문자가 그에게서 완성됐다. 이 모든 것은 세종의 백성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됐는데 여러 요소가 통합된 뮤지컬은 그의 애민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인 셈이다. <세종, 1446>에는 20명의 앙상블 배우가 출연한다. 이들은 세종을 반대하는 신하이자 저자거리의 백성이 되어 무대 구석구석을 누빈다. 작품의 시대와 공간, 정서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앙상블 배우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세종, 1446>은 극의 많은 부분을 합창으로 설정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게 했다. 작품의 마지막 곡인 ‘그대의 길을 따르리’는 마치 세종의 애민 정신에 대한 답가처럼도 들린다.

<세종, 1446>은 본공연 전, 영국에서 소개됐다. 600년 전 조선의 이야기는 세계에서도 통한다. 분노와 증오는 어디서든 쉽게 발견된다. 혼돈의 세계 속에서도 함께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다면, 그것은 상생의 태도 덕이다. <세종, 1446>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를 통해 통합의 길로 달려나가는 극이다. 어쩌면 2021년 가장 필요한 작품일지도 모른다. 세종의 이야기는 2021년 한글날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10~12월, 하남, 진주, 김해, 여주에서 이어진다.

#### 장경진

공연 칼럼니스트. 엔터테인먼트 웹매거진 <매거진 t>와 <텐아시아>, <아이즈>에서 10년간 콘텐츠 프로듀서와 공연 담당 기자로 일했다. 현재는 프리랜스 공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공연예술 작품 속 여성의 삶과 선택에 주목하는 무크지 <여덟 길피>를 만들고 있다.

뮤지컬 <세종, 1446>은 오는 10월 9일(토) 한글날 특별 공연으로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연이어 10월 16일(토)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1월 19일(금)~20일(토) 진주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2월 3일(금)~4일(토)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12월 17일(금)~18일(토)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공연 예정이다.

### 서로 다른 환경의 이들, 한목소리를 내다

세종의 업적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각종 저서를 짓게 했고, 간의와 자격루를 만들어 조선의 과학적 기틀을 마련했다. 무기를 개량하고, 의리기관을





01

## 한울과 같은 마음 여강에 흐르니

### 해월 최시형

이천식천(以天食天), 이심치심(以心治心). 하늘과 사람이 같으니 자기 마음을 다스려 세상을 다스리라는 의미다. 이 가르침을 널리 알린 해월 최시형. 경기도 문화재 도 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된 해월 최시형 선생 묘소 앞에서 그의 삶을 추모한다. 여강길을 걸으며 최시형의 발자취를 느껴본다.

### 스스로를 다스려 바르게 하라

해월(海月)이라는 호를 가진 최시형은 1827년에 태어나 서른이 되던 무렵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를 만났다. 최제우는 1864년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하고, 최시형은 그의 뒤를 이어 동학의 2대 교주가 된다. 여주 도전리 전거론은 동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다 몸이 쇠한 노년의 최시형이 그의 제자인 손천민, 김연국, 손병희 등과 함께 피신해 지낸 곳이다. 최시형은 이곳에서 의암 손병희를 자신의 뒤를 이을 3대 교주로 명하고, 가르침을 전한다. ‘이천식천(以天食天)’과 ‘이심치심(以心治心)’이 그것이다.

해월이 허락한 뒤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한울님과 사람 중에 누가 더 귀한가요?”

“똑같이 귀합니다.”

두목 가운데 누군가 대답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길바닥에 박힌 돌맹이와 길을 걷는 사람 중에 누가 더한가요?”

“…… 같이 귀합니다.”

대답했던 사람이 잠시 뜸을 들인 뒤 대답했다.

“잘 말했어요. 한울님이나 사람이나 돌맹이나 똑같이 귀하지요.

우리는 한울님을 공경하듯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듯 돌맹이를 공경해야 합니다. 의암, 이만하면 되겠는가?”

해월이 손병희와 눈을 맞추며 물었다.

“네.”

손병희는 앉은 자리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는 것과 비교한 이천식천(以天食天),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도 같다는 이심치심(以心治心).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은 결국 하늘과 같으니 스스로를 다스려 바르게 하라는 뜻이다.

### 어서 가자! 길이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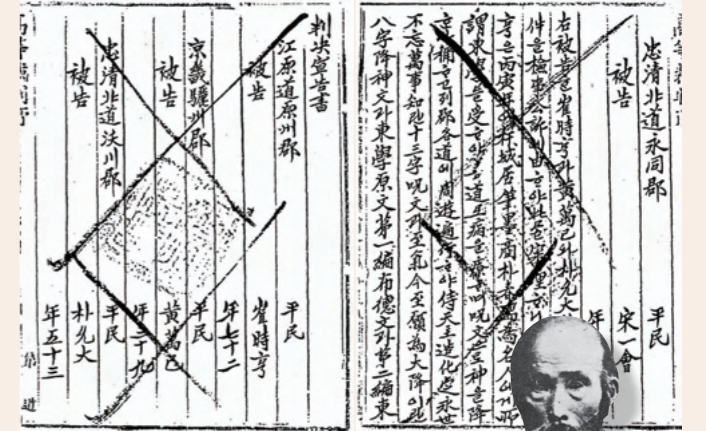
최시형 일행은 여주 도전리에서 5개월 정도 머물렀다. 그러다 이들이 떠난 이천에서 관군이 이들을 찾아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여주 사람 임학선이 소개해준 원주군 호저면 고산리에 있는 송골 원덕여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곳에서 체포당한 최시형은 여주 여강길을 따라 배를 타고 경성으로 간다.

“동학 괴수 최시형은 오라를 받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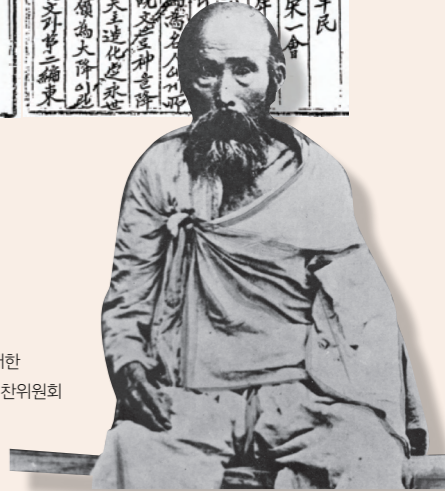
임순호가 먼저 마당으로 나서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잡아 끌어앉혔다. 방 안에 앉은 해월을 잡기 위해 병사들이 달려든다. 해월은 두 손을 모아 아래배에 올려놓고 말했다.

“먼 길 오시느라 애썼소. 갑시다.”

해월이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병사 둘이 달려들었다. 한 병사는 해월이 쓴 삼층관을 벗겨 집어 던지고, 한 병사는 해월의 등을 확 밀었다. 붉은 오라를 든 병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해월과 임순호를 꽂꽂 묶었다. “드디어…….”



02



03

01 자산을 끼고 흐르는 여강 상류 풍경 ©이태한

02 해월 최시형의 판결 선고서 일부 ©국사편찬위원회

03 생전의 해월 최시형 ©국가기록원

송경인은 감개무량한 얼굴로 목이 멘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송경인은 갑오년 전투가 끝나고부터 해월 뒤를 쫓기 시작했으니 3년이 훌쩍 넘었다. 해월이 송경인을 바라보며 말한다.

“내 어젯밤에 그대 발소리를 들었다오. 고생 많았소.” 해월의 말을 들은 임순호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임순호는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마당에 나섰다. 홀로 앉은 해월의 옆 그림자가 등불에 비쳐 창호지 문에 생겨 있었다.

‘그 밤에 송경인의 발소리를 듣고 계셨구나. 아아.’ 송경인은 해월을 바로 보지 않았다. 고생했다는 말에 대답도 없었다. 대신 해월을 잡고 선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이 칠십을 넘긴 노인 아니냐. 오라를 느슨하게 묶어도 된다.”

한 병사가 해월 팔을 묶은 오랏줄을 만져 보더니 고를 풀어 약간 느슨하게 만들었다. 해월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이지경 형제를 돌아보며 말했다.



04

“매를 많이 맞았지? 여러 가지로 미안하구나.”  
이치경 형제가 고개를 더 숙이고는 어깨를 들썩인  
다. 그때 송경인이 큰 소리로 외친다.  
“어서 가자! 길이 멀다.”

### 내가 저 자산이요, 내가 저 복숭아라

배가 마련됐다. 문막참과 여주를 오가는 뚝배다. 황포로 만  
든 돛을 높이 올리고 배는 출발했다. 섬강을 따라 내려간 배  
는 자산 앞에서 남한강을 만났다. 북쪽으로 흘러오던 남한강  
이 섬강을 만나면서 서쪽으로 직각으로 꺾어 흐른다. 여주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남한강을 여강이라 부른다.  
배가 여강에 들어설 무렵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 배가 쏘  
다. 자산 앞에 만들어진 넓은 자갈 모래밭이다. 송경인이 사  
공에게 호령한다.

“한시가 급하다. 왜 서느냐?”  
“세로돛을 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갈 수 있습  
니다.”  
사공이 허리를 굽실하며 대답한다. 한강 본류에 왔  
으니 돛을 다 펴고 가겠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송경인이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잠시 쉬어 간다. 죄인들에게도 물 한 그릇씩 줘라.

너희도 마시고.”  
“네.”  
몇몇 병사들은 모래밭으로 내려가 오줌도 누다. 한  
병사가 물이 가득 담긴 사발을 해월에게 들고 왔다.  
받아 마시니 시원한 느낌이 식도를 타고 위까지 내  
려간다. 해월은 송골에서 문막참까지 걸어오느라 몹  
시 지쳐 있었다. 더구나 약해진 몸으로 배를 타니 멀  
미까지 일어나 어질어질하던 중이다. 물기운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옆에 앉은 임순호와 황만  
이는 그런 해월을 눈물이 그렇그렇한 눈으로 바라본  
다. 해월의 풍성한 수염 사이로 붉은 노을이 물든다.  
임순호가 고개를 들어 서쪽을 보니 붉은 해가 꼬리  
를 산 너머로 감추는 중이다.  
“이야! 저 봐라!”  
“불났네, 불났어.”  
병사와 사공들이 서쪽 하늘 노을을 보면서 감탄한  
다. 해월도 고개를 들어 노을을 본다. 임순호도 황만  
이도 천지자연이 만들어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  
았다.  
“저 바위 좀 보게. 햇살이 바위틈마다 촌촌히 들어갔  
네그려.”  
해월이 강가에 한 면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넓은 바  
위 벼랑을 가리켰다.  
“그래서 자산이라 부릅니다. ‘자줏빛 자(紫)’를 써  
서요.”  
임순호가 말했다.  
“잘 익은 복숭아 같다고도 합니다. 바위 전체 모양이  
둥글어서요.”  
황만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다 여주 사람이라 자산  
의 유래를 잘 알았다. 해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이름이고 좋은 이야기일세. 천지자연이 부모  
고 부모가 천지자연이라. 내 몸속에 부모가 다 있고  
천지자연이 다 들었으니. 내가 저 자산이요, 내가 저  
복숭아라. 자산을 보는 마음이 이렇게 감동하는 것  
아니겠는가.”  
“참 그렇습니다.”  
임순호가 대답하고 황만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돛을 단 배가 다시 출발했다. 용인 땅 양지에서 발원해 여강  
으로 흘러드는 청미천이 합수하는 도리섬이 보인다. 해월은  
지난해 여름 끝 무렵, 도리섬 옆 도리나루에서 강을 건너 도  
전리로 들어갔었다. 나루에는 배만 홀로 묶여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해월은 한 해도 지나지 않았건만 세월이 참  
으로 아득하다고 생각한다.  
해월을 태운 배는 천 년 묵은 이무기가 산다는 바위늪구비를  
지났다. 점점 물이 많아지는가 싶더니 오른편으로 신록사 강  
월현과 전담이 보이고 왼편으로 드넓게 펼쳐진 모래밭이 나  
타났다. 여주 조포나루는 모래밭이 끝나는 곳에 있었고, 배  
는 그곳에 멈췄다.  
여주 각오에서 하룻밤을 보낸 해월은 다음 날 배편으로 경성  
으로 올라가 광화문 경무청 감옥에 갇혔다. 해월은 10회 이  
상 재판을 받은 뒤 1898년 6월 2일 교수형을 당했다. 제자  
이종훈이 사흘 뒤 해월 시신을 수습해 송파에 무덤을 썼다.  
2년 뒤인 1900년 5월 2일, 손병희와 김연국을 비롯한 동학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해월은 여주 월척산 천덕봉에 영원한  
안식처를 얻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마지막 순간, 최시형은 여강을 보며 여주  
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에 담고 자연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  
들이는 철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가르침은 여  
강을 따라 흐르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해월 최시형의 이야기는 《여강길 이야기 - 삶이 흐르는 여강 1》 중 1부 상류길 이야기 - 여강과 해월 편에서 발췌·수록했습니다. 《여강길 이야기》는 여강길 주변의 이야기 자료를 수집·발굴해 여강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여강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04 물안개가 낀 여강 풍경 ©이태한  
05 해월 최시형 선생 묘(경기도 문화재, 도 기념물 제228호) ©여주시청



05

# 이 한 장의 사진

여주의 공간은 시간을 품는다. 어린 시절 뛰놀던 소풍지를 내 아이들과 찾을 때면, 학창 시절 수다를 떨며 배 타고 건넌 여강을 지날 때면 추억이 방울방울 솟는다. 빛바랜 사진 앨범을 뒤적거리며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내 마음속 영원한 소풍지  
영릉

봄소풍은 늘 영릉으로 갔다. 둥그스름한 언덕 같은 영릉은 신나게 뛰노는 우리를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다. 새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분홍빛 진달래가 활짝 피고 푸른 소나무가 멋스럽게 우거진 지상낙원이었다. 보물찾기를 하느라 내내 숨차게 뛰어다니던 영릉 곳곳은 어느새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짝사랑을 추억하는 곳  
신록사 나루터

학창 시절, 대신중학교에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다. 여강을 건널 배를 탈 때 휘청하면 슬쩍 손을 잡아주고서 발그레해지던 기억, 그러나 끝내 고백은 하지 못했다. 이곳은 조선 4대 나루터였다고 하니, 그 옛날에도 얼마나 많은 청춘남녀가 여강 나루터를 건너며 사랑의 눈길을 주고받았을까?



여고 졸업반의 패기를 기억해  
여주대교

일명 '세라복'이라 불리던 교복을 휘날리며 세상을 향해 패기 있게 나아갈 거라며 여주대교를 당당하게 건넌 우리. 남강을 가로지르고 신록사에서 영월루를 잇는 여주대교를 친구들과 견노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다. 친구들과, 보고 싶다.

# 여주의 시간을 품은 나무의 공간들

- 해평 윤씨 종택 · 황학산수목원 · 목아박물관

자연의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는 지나온 시간을 나이테로 몸에 새긴다. 수십·수백 년을 한자리에서 여주의 시간을 오롯이 지켜보고 버텨온 나무는 묵묵히 모든 것을 추억한다. 나무를 주제로 떠나는 여주 기행에서 공간별로 다양한 형태의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01



위치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모래실2길 11  
자유 관람. 내부 방문은 사전 협의  
문의 : 여주시청 문화재관리팀



02

01 해평 윤씨 동강공파 종택 솥을대문에 새겨진 중훈

02 반가집의 위풍을 드러내는 사랑채

## 조선 반가집의 품위를 갖추다

해평 윤씨 동강공파 종택 - 경기 문화재자료 제97호

### 가문의 기억을 담다

여주의 셋강 청미천을 따라 펼쳐진 희고 고운 모래밭을 따라 가면 이름도 예쁜 모래실 마을이 나온다. 그중 달갈봉 줄기를 뒷동산으로 두른 채 청미천을 앞에 끼고 너른 들판을 건

너 오갑봉이 둘러싼 배산임수 터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기와 집을 만날 수 있다. 여주의 3대 명문가로 금사면 남양 홍씨와 삼밭골 여흥 민씨, 모래실 해평 윤씨를 꼽는데, 이곳이 바로 해평 윤씨 동강공파의 종택이다.

솥을대문을 들어서면 행랑채가 한편에서 손님을 맞는다. 정면에 위풍당당하게 안채가 서 있고, 안채 건넌방 뒷마루와 연결돼 나란히 자리한 사랑채가 기다린다. 본래 안채와 약방채, 사랑채와 사랑중문채, 바깥대문과 행랑채, 연못까지 갖춘 99칸 집이었지만 현재는 46칸만 남아 반가집의 옛 시간

을 추억한다. 상량문에 신축년(辛丑年)이라고 쓰인 글자를 보니 고종 28년(1891)에 세워진 기와집이구나 싶는데, 무려 130년의 시간을 지나온 것에 새삼 놀라움을 갖게 된다. 조선 중기의 문인 윤세주가 처가인 경주 김씨의 고향에 터를 잡고 이 집을 세웠다고 한다.

해평 윤씨 가문은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다.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었으나 수양대군이 왕위를 잡고자 일으킨 계유정난 때 병장기를 관장하던 처공과 가족이 참형을 당하



03

- 03 바깥 풍경이 액자처럼 보이는 사랑채의 누마루 공간
- 04 황학산수목원의 각종 희귀식물과 곤충들
- 05 끝없는 길이 이어질 것 같은 미로원 내부
- 06 조경이 잘 조성된 황학산수목원 입구

고 일가친척까지 유배에 처했다.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인조반정 후에는 인성군 처가의 가문이라며 고초를 겪었다.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조선 중기 문신 남악 윤승길이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구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가문이 겪은 평지풍파만큼이나 해평 윤씨 종택 또한 굴곡 많은 세월을 견뎌왔다. 1950년 후반 근처의 청미천이 홍수로 범람해 솥을대문과 행랑채가 무너지고, 1963년 사랑채가 불타는 등 한동안 초석만 남아 있다가 2015년에 다시금 제 모습을 되찾았다.

입춘방 글귀를 내거는 여느 반가집과 달리, 솥을대문에 충효를 집안에 전하고 종친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뜻으로 충효전가(忠孝傳家) 종친돈목(宗親敦睦)이라 적은 종훈을 내건 이 유도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빛을 찾은 가문과 종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아니었을까?

### 집은 사는 이를 닦는다

나무로 지은 집은 사는 이의 삶의 방식을 닦는다. 건축 기행으로 해평 윤씨 동강공파 종택을 둘러본다고 하면 4가지 독특한 지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는 복도를 두었다는 점인데, 안주인과 바깥주인이 그만큼 긴밀하게 지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채에 툇마루가 폭넓게 쓰인 것도 인상적인데, 대청마루와 방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구조다. 이는 평면 구성의 건축에서 쓰임새를 중요시한 조선 후기 반가집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안채 오른쪽 날개 끝에 화방벽을 꽃담과 같이 꾸민 것도 독특하다. 벽돌로 부귀라는 한자를 만들었는데, 궁궐에서는 각각 바깥쪽에 장식과 기원을 위해 만들었던 것과 달리, 반가집에서 안쪽 공간에 꽃담을 꾸민 것은 기원의 의미를 더 강하게 두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살림채 왼쪽 날개에 영정을 모시는 사당방을 들여놓은 점도 특이하다.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사당을 지어 제를 모시는데, 생활공간에 사당방을 꾸렸다는 것은 그만큼 선조의 뜻을 가까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추론된다.

사랑채의 초석과 기단이 기능적으로 배열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초석과 기단을 바탕으로 복원됐기에 벽돌의 다듬새와 색만 보더라도 공들여 만든 집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해평 윤씨 동강공파 종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은 다락처럼 높게 만든 누마루이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액자가 되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 푸르름 가득한 천상 정원

황학산수목원 - 경기공립수목원

### 황학산이 폭 끌어안은 듯 평안하고 고요하다

여주 매룡동, 산세가 유려한 황학산이 폭 끌어안은 듯 평안하고 고요한 황학산수목원은 풀 향기가 가득한 천상 정원처럼 다가온다. 용이 되고 싶었던 이무기가 이곳 매룡지에서 용틀임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 때문이 아니라라도 자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다시금 다잡아보고 싶은 이들은 이곳에서의 산책을 권한다.

황학산수목원은 볼거리와 놀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종합 선물과 같다. 숲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오솔길을 걷다 보면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 나무 이파리를 비비면 왜 솜사탕 냄새가 나는지도 알 수 있고, 빨간 산딸기 열매가 얼마나 새콤달콤한지도 경험해볼 수 있다.

석정원과 강돌정원에서 돌 사이를 비집고 자라난 식물들 보



04



05

면서 생명의 경이로움도 느껴보고, 산야초원에서 약용식물을 질경질경 씹어보기도 해보자. 미로원에서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잡기 놀이를 해봐도 재미있을 것이다. 14개 테마 정원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자연과 어울리다 보면 마음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 것이다.

전망대에서 수목원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거나 드넓은 잔디피크닉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잔디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른다.

###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생각하다

자연은 우리에게 묵묵하지만 강렬한 깨달음을 준다. 황학산수목원은 아이나 가족과 함께 도감을 펴 들고 식물과 곤충들을 보면서 자연생태 기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목본 669종과 초본 893종을 더해 총 1,562종의 식물이 우리를 반기는데, 그중에서도 여주 남한강의 냇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진보라색 단양쑥부쟁이는 가을이면 꼭 찾아봐야 할 식물이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중 하나이자, 여강에 자생지가 남은 세계 유일의 희귀식물이기 때문이다.

은빛의 금강초롱꽃도 한국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이기에 가을에 눈여겨봐야 한다. 응달진 산골짜기 시냇가에서 수줍

게 자라는 노란색의 왕쑥배도 가을이면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봄철에는 깊은 산속에서 가끔씩 자라는 귀한 식물 백작약이나 한국 숲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 금붓꽃, 여름에는 뒤집어진 꽃잎이 특이한 희귀식물 솔나리도 신기한 구경거리로 다가올 것이다.

황학산수목원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들에 비해 우리가 자연에게 행한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를 가져보자.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곳을 찾은 이유는 충분하다.

06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입장료 : 무료. 숲 해설 프로그램은 예약 필수(화~목요일에 가능)  
 문의 : 031-887-2745

## 예술이 된 전통 목공예 전시장

목아박물관 - 문화관광부 제28호 등록 전문사립박물관

### 장인의 나무 사랑으로 태어나다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하나의 아름다운 목각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곳, 목아박물관은 여주 강천면에 위치해 있다. 입구 대문부터 존재감을 뽐어내는 목아박물관은 거대한 돌이 단으로 쌓인 대문이 손님을 맞이한다. 다른 한편에는 이전에 쓰이던, 나무로 된 거대한 전통 맞이문이 있는데 거북이 형상을 한 나무 자물쇠 하나만으로도 목각 예술의 웅장함을 드러낸다.

목아박물관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 장인 목아 박찬수 선생이 1989년에 세운 사립 박물관이다. 동양 최초의 불교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고, 불교미술에 기반한 한국 목조각 문화의 아름다움을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지었다. 개관 시

에는 목아불교박물관으로 불렸지만 이후에는 종교의 한계에서 벗어나 목각 예술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박찬수 선생의 호 목아(木牙)는 나무에 새 생명을 싹틔운다는 뜻으로, 나무를 하나의 목각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나무를 작품의 주 소재로 사용하는 만큼 박찬수 선생의 나무 사랑은 특별하다. 공간 곳곳에는 그 자체로 수려함을 뽐내는 각종 수목이 자리해 야외 조각 공원의 여러 가지 석상, 동상과 어우러진다. 더불어 목각 다리는 연못의 경치를 완성하고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 단군상까지 전시된 이곳은 범세계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작품을 만들 때는 오동나무나,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 나무의 고유의 성격에 따라 조각이 달리 나온다고 한다. 나무의 결을 잘 읽고 성격을 살려 조각하는 내공이 필요하다고. 목각에 오랜 세월을 바친 내공이 바탕이 됐기에 일반적인 방법처럼 나뭇조각을 접붙이지 않고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를 통째로 조각하는 오라를 뽑는 장인으로 우뚝 섰다.

목아박물관의 모든 현판과 주련은 '향기로움', '마음의 문', '큰 말씀의 집' 등 한자가 아닌 한글로 되어 있다. 여주에 세종대왕의 능을 모신 만큼 한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박찬수 선생의 뜻이라고.

'향기로움'의 누각은 나무 자재를 인위적으로 다듬지 않고 자연의 나뭇결 그대로 기둥을 세웠다. 불사존 꼭두와 종을 처마에 달아 풍경 소리마저 그 자체로 완성된 예술 작품이다. '마음의 문'에는 산청약초축제를 대표한 초대형 허준 목조각상을 비롯해 동관으로 만든 보살상, 아름다운 글귀를 적은 주련 등이 조화롭게 배치돼 있다. 오백나한상과 불교 경전을 넣은 책장의 축을 돌리는 윤장대, 보존물이 있는 '큰 말씀의 집'은 절 내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그 세밀함과 지극한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 목각 예술관, 그 자체로 보물이 되다

목아박물관은 보물 3점을 포함해 무려 6만여 점의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면면이 국립박물관에 버금가서 놀랍다. 박찬수 선생이 자료 조사와 연구차 사비를 털어 하나씩 수집한 것이라고. 미타참법을 담은 보물 제1144호 예념 미타도량참법, 경전과 교리의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진 보물 제1145호 묘법연화경, 화엄경 중 하나인 보물 제1146호 대방광불화엄경 3점은 문화재로서 가치와 수준이 높은 만큼 목아박물관의 격을 올려준다.

3층 전시관에 있는 너무나 해맑고 편안해 보이는 표정의 동자승 목조각은 매끄러움이 탁월해 목조각이라기보다는 실제 어린이와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한반도에서만 자라는 소나무로 제작된 '백제관음상'은 그 곡선의 아름다움을 수식하기 어렵다.

특히 1989년 제14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법상'은 수령이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로 제작됐다. 보살상과 촛대 등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조각돼 감탄을 자아낸다. 오랜 시간 한길만 보고 살아온 박찬수 선생의 품성은 굳게 뿌리를 내리고 수백 년을 살아온 한 그루의 나무와 닮아 있다. 지금은 영월에 터전을 잡고 새로운 작품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목아박물관은 연로하지만 그 열정만은 뜨겁고 꾸준한 목아 박찬수 선생의 정신이 오롯이 배어나는 공간이다.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문안길 21  
입장료 : 개인 5천 원. 월·화·일 휴무  
문의 : 031-885-9952



08

- 07 큰 말씀의 집, 절이 아닌 재현된 목조각 작품
- 08 다양한 석상이 전시된 목아박물관 야외 공원 전경
- 09 목아 박찬수 선생의 목조각 예술품

\* 취재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 해설사 손경희 님, 여주시 일여 통역사 이남희 님,  
종손 윤중진 님, 윤홍길 님, 숲 해설사(다울숲) 김정희 님,  
이현우 님, 학예연구사 김혜빈 님, 김완준 님.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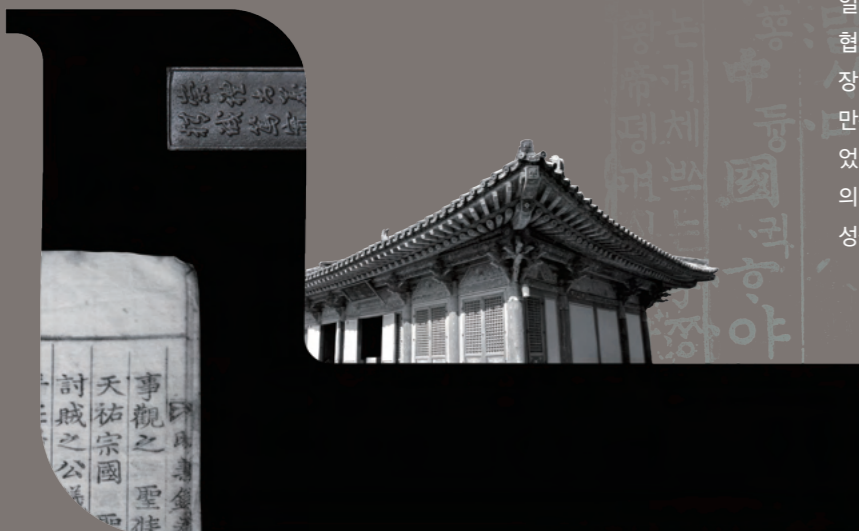




## 한글의 우수성과 보편적 가치

### 놀라운 발명품 한글

얼마 전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그룹 방탄소년단과 협업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당시 맥도날드 매장 직원들은 특별한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티셔츠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버터사이드', '로디디' 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글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이 됐다. 우리의 위대한 유산, 한글. 익히 들었지만 정작 잘 몰랐던 한글의 우수성을 조목조목 짚어본다.



## 세계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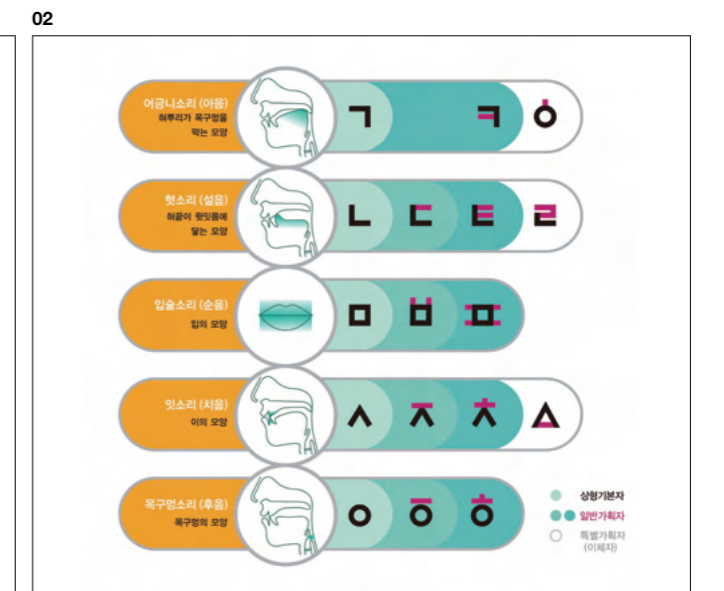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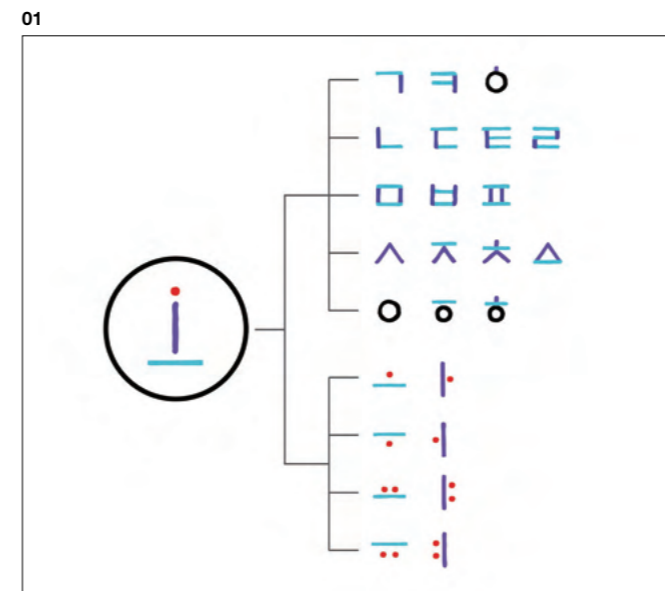
1886년 고종 임금의 근대식 학교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세우면서 미국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한테 세 명의 교사 파견을 요청한다. 이때 24살(미국 나이 23살)의 젊은이가 한국 땅을 밟는다. 위대한 한국학 학자이자, 목회자였고 한국 독립운동가였던 험버트(Homer Hulbert)였다. 그는 3년 만에 한국어와 한글에 최고 권위자가 되어 미국 <뉴욕트리뷴(New York Tribune)>에 소논문을 투고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남긴다. "The Korean alphabet has not its equal for simplicity in the construction of its letters. HULBERT(1889), The Korean Language." 한글 짜임새의 간결함과 견줄 만한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해외에 알린 최초의 논문이었다. 영국의 저명한 문자학자 제프리 샘슨(Geoffrey Sampson)은 《Writing Systems(표기 체계)》(1985)라는 책에서 "한글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의 하나로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Hangeul is ultimately the best of all conceivable scripts for Korean, Hangeul must unquestionably rank as one of the great intellectual achievement of mankind)"라고 했다. 외국 학자들의 한글 격찬은 끝이 없지만, 영국의 역사가 존

맨(John Man)의 평가가 압권이다. "한글은 모든 문자의 꿈(Here, then, is about the best alphabet any language can hope for(2001,ALPHA BETA. p.116)"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한글에 대해 이렇게 경이로운 찬사가 이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답은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문자이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품은 무엇일까? 형광등, 비행기, 휴대전화. 모두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최고는 아니다. 더 나은 발명품 또는 개량품이 1년도 안 돼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민정음, 한글은 더 이상 더 나은 문자가 나올 수가 없다. 세계 천재 1,000명을 모아 1,000년을 연구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문자를 세종이 발명했고 우리가 그 문자를 쓰고 있다. 그럼 보편성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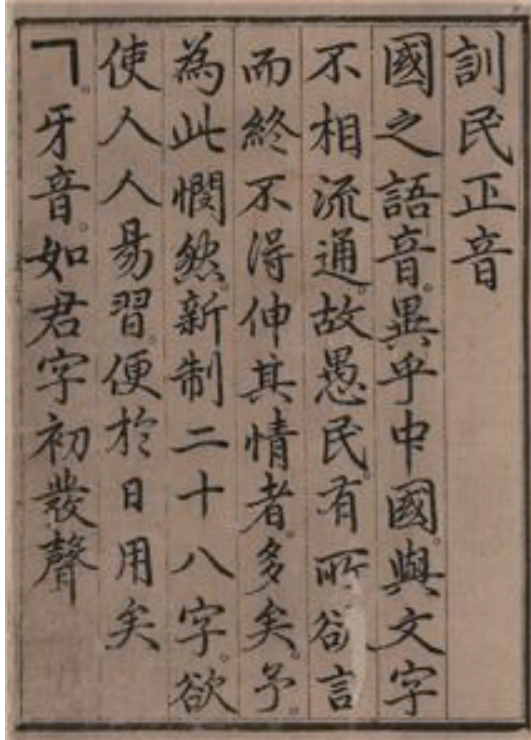
## 점과 직선, 문자가 되다

한글이 배우기 쉬운 것은 문자 짜임새가 과학적이고 간결하기 때문이고 그런 특성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15세기 훈민정음 28자를 기준으로 보면 1번 그림에서 보듯 점, 원과 직선만으로 구성돼 있다. 자음자와 모음자 모두 그렇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70%를 넘는다.

- 01 한글(훈민정음)의 짜임새
- 02 15세기 훈민정음 자음자 17자의 제자 원리







03

03 《훈민정음 해례본》 초간본 정음1ㄱ(간송미술관 복간본)

\* 후대 복원한 붓글씨체

04 독일 시장조사 전문 기업 스타티스타(Statista) 미국 대학생들 상대로 조사한 자료

## 나무와 함께 세상에 처음 오다

《세종실록》에, 세계 문자사에 아니 문명사에 경천동지할 사건이 드러났다. 58자로 된 한자로 된 간단한 기록인데 핵심만 줄여 보면, 이달에 임금(세종)께서 친히 훈민정음을 창제했는데 그 글자는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로 분리돼 있어 합한 후에 글자가 이루어지는데, 글자는 간결하지만 수많은 글자를 생성해낼 수 있어 한자어이든 순우리말이든 맘껏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따로 만든 자모문자, 곧 음소문자를 세종이 직접 발명했다는 것인데 사건의 비중에 비해 기록은 짧고 문자의 실체는 단 한 글자도 드러나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은 사건인 양 마무리되고 있다. 임금이 직접 발명했지만 한자가 절대적인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건이었음을, 임금이 몰래몰래 연구해 만든 글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임진왜란 때 불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남아 있다면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 기록으로는 이 기록이 전부다. 《승정원일기》가 남아 있더라도 비밀리에 만든 글자라면 이 기록 이상의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창제 공표 두 달 뒤에 공개되는 최만리 등 7명의 반대 상소에서 그 점이 잘 드러난다. 반대 상소에 참여한 대부분은 집현전 원로 대신들이다. 이들은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반포를 의논 없이 서둘러 시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집현전의 부제학인 최만리조차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몰랐다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낱낱이 기록하는 실록조차 창제를 마무리해 공표했을 때의 기록, 곧 1443년 12월 30일 자 한 달 기사를 모아놓은 달별 기록이 처음이다.

결국, 이때 언급한 글자의 실체는 무려 2년이 훌쩍 넘어 1446년 음력 9월 상순 무렵,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한다. 첫 글자는 놀랍게도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글자 ㄱ이었다.

제일 먼저 나오는 ㄱ(정음1ㄱ)은 아쉽게도 원본 그대로가 아니고 1940년 서예의 대가였던 이용준이 붓으로 복원한 글씨다. 해례본은 목판본이었으므로 ㄱ 글자는 나무에 새긴 활자이다. 보통은 붓으로 써서 나무에 새겨 한자는 붓글씨 꼴(송설체)을 유지하고 있지만 ㄱ은 붓글씨 꼴을 완전히 벗어났다. 마치 컴퓨터 반듯체(고딕체)처럼 반듯반듯하다. 붓글씨는 부드러운 대신에 똑같은 글꼴을 만들어내는 어렵다. 새 문자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게 쓸 수 있는 개성보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똑같이 쓸 수 있는 표준 꼴이 필요했다. 세종은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각수에게 각별히 주문하고 살펴서 또 원하는 글꼴을 위해 세심한 지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직선 중심 문자...! 이것은 문자혁명이고 활자 혁명이었다. 문자 기적이었고 활자 기적이었다. 혁명과 기적은 어려움과 복잡함에 있지 않고, 쉽고 간결함에 있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었고, 이러한 글자 덕에 허공에 떠돌던 수많은 말이 자리를 잡았다.

강아지, 개구리, 기린, 개굴개굴, 그림자, 그리워, 가나나.....

이렇게 최초로 한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목판에 새겨 출판했기 때문에 나무와 함께 한글은 이 세상에 처음 온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으로 설명하다 보니 한문 속에 한글이 쓰인 셈이다. 5,337자로 구성돼 있는데 한자가 4,790자이므로 547자가 한글이다. 자음자, 모음자 등의 낱글자는 기본자 28자에 운용자가 25자 더 있어 모두 53자이다. 음절자는 받침(종성자)이 없는 음절자 81자에 받침이 있는 음절자 95자, 미완성 부분 음절자 4자 포함 모두 180자가 나온다.

이렇게 새 문자의 자음자/모음자, 초성자/중성자/종성자의 다양한 쓰임새를 보여주며 새 문자의 효용성과 기능성을 요리조리 보여주었다.

## 한글의 아름다움, 전 세계인과 나뉘야

세계 곳곳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K-콘텐츠, 한류 바람은 한국 문화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글의 품격까지 높이고 있다. 전 세계 7,000개 언어 가운데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7,730만 명, 전 세계 14위 언어를 기록했고(‘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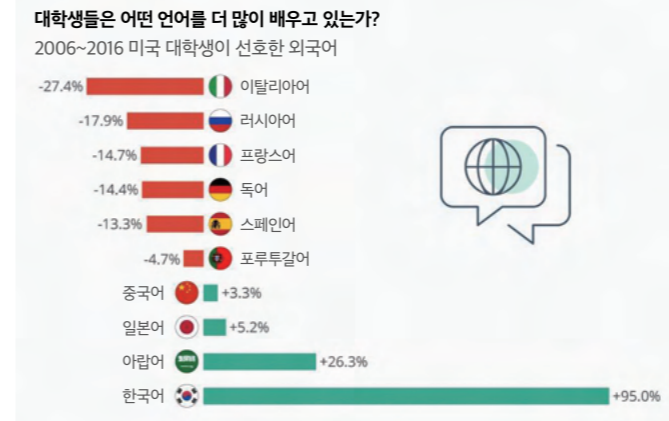
놀로그’ 국감자료 2020년 2월 발표), 전 세계 약 4,000만 명이 인터넷에서 한글로 정보를 나누며, 언어별 인터넷 사용자 수로는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언어로 성장했다. 한글학교와 세종학당,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재외 한국문화원 등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은 현재 전 세계 4,000개에 달한다.

현대언어협회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2006~2016년 한국어 수강 신청을 한 대학생 수는 거의 두 배인 1,000명 이상이 늘어 수강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언어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류 한글 꿈을 꾀본다. 그것은 ‘국뽕식’ 민족주의라기보다 한글의 보편적 가치, 보편적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이다. 전 주한 미국대사인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는 2010년 MBC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날아오르다>에서 한국인들은 한글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전 세계인과 나뉘야 하고 그것은 한국 문화의 힘에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요즘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인 사오리는 10월 5일 세종국어문화원이 주최하는 한류 한글 학술대회 때 한글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인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쓸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위대합니다. 한글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김병기 기자, <어느 일본인의 고백 “위대한 한글, 지금의 나 만들었다”>, 오마이뉴스 2021년 8월 31일 자)

04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늘푸른자연학교 명예교장. 35년간의 한글 운동과 연구 공로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았고, EBS 한글 지킴이로 뽑힌 바 있다. 지은 책으로 《웃는 한글》, 《누구나 알아야 할 훈민정음, 한글 이야기 28》, 《한글을 지킨 사람들》, 《퀴즈 세종대왕》, 《역사가 숨어 있는 한글가운길 한 바퀴》 등 99권(공저 63권 포함)이 있다.



# 이야기 셋. 우리 곁에 여주세종문화재단

52 만나보기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연습 현장

56 다시보기  
<어반브레이크 2021> 현장 취재  
<하몬드 오르간의 향해> 현장 취재

62 들여다보기  
여주세종문화재단 공연·교육·학술대회·문화 행사·축제·전시·자동차영화관·공모전

68 여주의 창  
독자 후기+설문 이벤트  
창간호 <여유를 만든 사람들>



## 내 마음속에 숨겨진 힘을 믿어요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연습 현장

어린이와 어른의 경계는 무엇일까? 시간의 두께만큼 현명함이 쌓여 세상을 안다고 한들, 아직도 내 마음속 어린이는 나조차 누구인지 명확한 답을 모르는 것만 같다. 자기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며 성장한 극 중 인물 만복이와 장군이 우리를 닮은 건 그 이유일 것이다. 이런 소중한 메시지를 담은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을 만드는 이들을 만났다.



### 오늘은 무슨 떡을 먹어볼까

“달콤한 말이 술술, 꿀떡-, 웃음이 비실비실, 바람떡-, 입에 착! 찹쌀떡- 무슨 떡을 먹어볼까!...”  
 “좋아요. 이 장면에서는 떡 하나하나의 매력이 전해져야 하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몸짓에서 떡의 맛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웃음소리가 가득한 구리아트홀 연습실, 10월 첫 공연을 앞두고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연습이 한창이다. 그간 연습한 노래와 대사, 안무를 바탕으로 무대 동선을 그리고 수정

하는 단계에 와 있다.  
 마스크를 쓰고 노래와 안무, 연기를 펼치면서 숨이 찰 만도 한데, 배우진의 열정은 그러한 제약과 한계를 넘어선다. 매 장면 꼼꼼히 확인하며 더 좋은 표현 방식을 고민하는 창작진과 배우진의 모습이 아름답다.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을 선보이려 창작진과 배우진을 비롯해 여주세종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썬)아츠온까지 4개 기관이 힘을 합쳤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들은 꿈을 갖고 더 넓고 큰 세상을 바라봐야 하기에, 이 작품을 선사하고 싶다는 모든 관계자의 의지가 마음으로 전해진다.



이가 우연히 신비한 떡집을 찾게 되고, 신기한 떡을 만드는 2명의 떡 요정을 만나 자기 자신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작품 속에 그려진다.

특히 뮤지컬에서는 원작에 나온 신비한 떡집이 더 환상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위해 떡 요정이라는 캐릭터가 새롭게 추가됐다. 소원을 이뤄주는 떡을 그리는 화가 떡 요정과 더불어 화가 떡 요정이 그린 떡을 직접 만들어내는 요리사 떡 요정이라는 설정이 부여됐다.

창작진은 극 중 인물 만복이와 장군이 달라진 계기를 두고 신비한 떡집과 떡이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두 친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극 중 조력자 역할을 하는 떡 요정의 도움에 힘입어 두 친구가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힘을 알게 되고 그걸 끌어내어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 나를 바꿀 힘은 내 안에 있어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을 준비하면서 창작진과 배우진, 제작진 모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됐다. 어린이라고 불리던 시기, 우리 모두의 고민은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어른이 된 지금,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준 현명함을 작품 속에 녹여내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작품 속 만복이와 장군이, 또는 자신을 닮은 극 중 인물의 모습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객이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얻어가기를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의 모든 이들은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 저 아이는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야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은 김리리 작가의 동화 <만복이네 떡집>을 원작으로 한다. 이 책은 2010년 첫 출간 후 어린이 필독서로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원작이 오늘날 어린이들이 겪는 상황과 고민, 아픔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창작진은 원작을 바탕으로 뮤지컬을 제작하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이해와 공감을 담아내고 싶었다.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에는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본 듯한 어린이들의 다양한 모습이 개성 있는 캐릭터로 묘사돼 있다. 늘 나쁜 말만 내뱉는 만복이와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내는 장군이 중심 인물이고, 만나면 늘 싸우는 두 사람 때문에 곤혹스러운 반 친구들이 함께 한다. 반 친구들도 저마다 사연을 가진 어린이들로, 관람객인 어린이들이 자신의 사연을 대입하고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 이렇듯 어른의 눈에는 말썽쟁이로만 비치는 만복이와 장군

### mini interview



#### 작가 김가람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을 관객에게 선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작품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층 성장해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어린이들의 현실적인 고민도 같이 드러나죠. 일부러 뭔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모든 것이 성장을 위한 과정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을 통해 관객 여러분이 자신의 상처나 고민의 이유를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자존의 힘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 원작 동화를 뮤지컬로 변환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떡집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득시키고 환상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가장 고심했어요. 극 중 인물 만복이와 장군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떡집과 떡의 신비한 능력 덕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힘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이에 조력자 역할이 필요해 뮤지컬에는 원작 동화에 없던 두 떡 요정 캐릭터를 만들어 넣었어요. 떡 요정 캐릭터를 통해 환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작곡가 혜음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중점을 둔 장면과 그를 위한 음악적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작품 속 배경인 '학교'와 '신비한 떡집'이라는 두 공간을 음악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현실 세계인 학교에서는 드럼과 베이스, 기타 등을 활용해 캐릭터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했고, 환상 세계인 신비한 떡집에서는 오묘한 느낌을 주려고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편성했어요. 관객 여러분도 음악적 효과로 준 공간감을 느끼면서 공연을 보면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 연출가 홍승희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창작진으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어린이 관객에게는 내 마음속에 나를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어른 관객에게는 나서서 뭔가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저 아이 곁에 있어주고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어요.

극 중 인물과 어린 시절의 자신을 비교했을 때 뮤지컬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됐나요?

작품을 할 때, 자료 조사와 분석도 많이 하지만 생동감을 위해 제 경험도 많이 투영합니다. 어린이들을 관찰해보면 가슴에 응어리가 있거나 화가 많은 어린이도 있고, 엄마를 창피해하는 어린이도 있거든요. 저 또한 어린 시절, 엄마를 창피해했던 적이 있어요. 애교가 많은 성격인데도 이상하게 엄마에게는 쉽게 화내고 막 대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의 저와 닮은 만복이를 표현해보기도 했어요. 연년생인 제 남동생과 장돌이가 닮은 것도 많아 생각나네요.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은 2021년 10월 9~10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 16~17일 오산문화예술회관, 12월 3~4일 세종국악당에서 만날 수 있다.





01

〈2021 어반브레이크 아트아시아〉에 여주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 작가를 알리고, 국내외 아티스트와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여주 문화예술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할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 도시적 감성의 한복판, 여주의 꿈을 내걸다

### 〈어반브레이크 2021(URBAN BREAK 2021)〉

도시의 감성은 거리 곳곳에 표현된다. 1970년대, 도심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린 그림인 그래피티는 '거리 낙서'라며 골치거리로 여겨졌다. 2021년 현재, 그래피티를 비롯한 팝아트는 예술 경매에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거리미술'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전 세계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여기의 감성을 담은 작품에 열광한다. 도시적 감성이 전시된 자리, 〈어반브레이크 2021〉에 여주의 아티스트 6명이 야심 차게 내놓은 작품으로 세상에 말을 건다.

### 힙한 아트페어, 어반브레이크

〈어반브레이크(URBAN BREAK)〉, 듣던 대로 현대적 감성이 가득 차다. 입구의 초대형 LED 미디어월에는 색색깔의 그래피티와 팝아트 작품들이 현란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힙합 음악이 들려오는 전시장에는 젊은 관람객이 가득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전시를 즐기고 있다. 한편에서 누군가는 키보드를 치고 누군가는 국악을 흥얼거리며 감성을 마음껏 표출한다. 관람객은 작품 앞에서 자유롭게 인증 샷을 찍어 SNS에 올리고, 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찍는다. 어반브레이크는 고상하게 차려입고 조용한 미술관에서 작품을 음미하는 전통적 미술 관람 방식과는 전혀 다른, MZ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이다.

〈어반브레이크〉는 거리예술(Street Art)과 그래피티(Graffiti)를 결합한 현대미술, 즉 어반 컨템퍼러리 아트(Urban Contemporary Art)를 한데 모은 아시아 최대의 아트페어이다. 2018년 시작된 이래 3회를 맞이한 〈어반브레이크 2021〉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코엑스 1층 B홀



02

03

04

- 01 〈어반브레이크〉를 표상화한 초대형 미디어월
- 02 김상범, 〈잉크를 뒤집어 쓴 여자 시리즈1-5〉, 2021
- 03 이정태, 〈Bent Space〉, 2021
- 04 이철재, 〈HAND DRAGON〉, 2021
- 05 박은서, 〈12지신 중 정묘신장 레고〉, 2019



05

에서 열렸다. 어반 컨템퍼러리 아트는 스프레이 페인트, 스텐실, 사진, 포스터, 스티커, 뜨개질,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현대 도시적 감성을 표현하기에 일상과 가장 가까운 예술이기도 하다. 이렇게 조망된 작품들은 패션, 광고, 자동차와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전파되고 대중이 함께 완성해가는 예술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어반브레이크〉에서는 대중문화와 예술성의 경계에서 조화를 이뤄낸 작품들이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어반브레이크에는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그래피티아티스트 뱅크시(Banksy)의 작품이 대표작으로 공개된 데 이어, 올해는 귀엽고 유머가 넘치는 캐릭터가 대표적인 팝아티스트 존 버거맨(John Bergerman)과 각 분야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이 모여 실험적인 예술 작업을 하는 그룹 툴보이(TOOLBOY)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공간을 꾸미는 방식부터 전시작에 있어서도 어반브레이크의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 온갖 색깔과 글자를 짝 채운 벽면에 작품을 걸거나 입체적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시작으로는 그래피티를 스니커즈 신발에 그리거나 스트리트 웨어로 제작한 작품도 있고, 어린이 감성의 어른을 위한 아트토이나 아트 컬래버레이션도 전시돼 시선을 모았다. 디지털과 전자

장비를 결합해 만든 실험적 작품도 눈에 띄었다. 오픈형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을 연결해 작품을 선보이는 행보도 관람객 지향적인 어반브레이크의 색깔이 드러나는 지점이 었다. 어반브레이크는 이같이 아트페어를 문화 축제로 연결 짓는 시도를 통해 일상과 맞닿은 현대미술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 여주 아티스트의 감성, 〈어반브레이크 2021〉에서 통하다

〈어반브레이크 2021〉은 참여한 아티스트의 화제성과 더불어 규모적으로도 예년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였다. 해외 초청 작가 부스를 비롯해 갤러리, ESG 아트 프로젝트, 작가 개인, 특별 전시, 브랜드, 지역 문화재단, 페어 스튜디오 등 8종류로 총 100개의 부스를 차렸다. 여주세종문화재단과 안양문화예술재단, 화성문화재단도 참여해 주목받았는데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젊은 작가들의 개성과 현대적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았다.

그중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여주 관내 작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이번 〈어반브레이크 2021〉에 작품을 출품할 아티



06

07

06 최선, <DA SEIN>, 2020-〈시간의 점1〉, 2018

07 이준범, <웃칠금박 찻잔>, 2021

스트 6명을 선정했다. 다양한 장르와 표현 방식으로 저마다의 색을 뽐낸 여주의 작가들의 면면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김상범 작가는 천에 둘러싸인 도자기 여인이 인상적인 <잉크를 뒤집어쓴 여자 시리즈 1~3>을 발표했다. 작가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세상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고자 불

평등을 당하는 표상으로서 여성을 주제로 삼았다. <12지신 중 정묘신장 레고> 등의 작품을 통해 레고를 닮은 젊은 도자 조형 작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박은서 작가는 전통과 자연,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새로운 재료와 방식을 접목시키며 작업을 풀어냈다. 이정태 작가는 <CW-23> 등으로 제목 붙인 창(Window) 연작을 통해 시각의 왜곡을 통해 보는 이의 시점에 따라 작품 안의 형태가 변화하는 조형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었다. 옷과 금박을 입힌 흙과 나무를 소재로 활용하는 이준범 작가는 <라탄 손잡이 도자기볼> 등의 작품을 통해 원목 소재나 넝쿨 등의 자연 소재를 접목하는 시도로 도자예술의 가치를 전했다. 여주의 전설을 타투에 새겨 표현하는 이철재 작가는 젊음과 자유의 상징이 된 타투를 중심으로 여주 남한강의 전설을 주제로 삼아 <남한강 달밤의 잉어 이야기>를 비롯한 작품을 통해 금속 공예와 일러스트를 접목한 작업을 발표했다. <시간의 점>이라는 작품을 비롯해 추상으로 담아낸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는 최선 작가는 도자기나 향아리, 그릇 같은 전통적인 소재를 추상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여주의 문화를 작품에 녹여내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6명의 아티스트를 만나보면서 한국의 현대미술이 여주에서 발현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mini interview



**이철재 작가 | <어반브레이크>를 통한 작품 발표는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여주의 강, 여강이 품은 전설에 늘 관심이 많아요. 신비롭고 독특한 전설을 타투 드로잉으로 그려 환상적으로 표현하죠. 인간이 된 잉어나 손을 닮은 용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러한 제 세계관을 <어반브레이크>를 통해 선보일 수 있어 기쁘고, 이 시간이 계기가 되어 대중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여주세종문화재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은서 작가 | <어반브레이크>에서 꽤 많은 작품을 판매했는데, 어떤 점이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나요?**  
그동안 도자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쓰이는 용기 등을 작업해왔어요. 이번에는 현대미술적인 작업을 발표했는데 판매까지 이뤄지니 새롭고 흥분되네요. 제 작품을 구입한 이유를 물어보니 '예술적인데 일상 공간 속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갖고 싶다'고 답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젊은 세대라 그러한 감성이 통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어반브레이크>에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여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작업을 계속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셋 다시보기

글 노윤영(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명성황후생가 문예관에서 공연 중인 트리오웍스

그날 밤의 향해

-트리오웍스가 펼친 <하몬드오르간의 향해>

음악의 매력은 오묘하다. 때로는 연주곡이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다 놓는다. 청자들은 잠시 동안 그날 밤의 온도를 즐기며 모험을 떠난다. 7월 29일 오후 7시 명성황후생가 문예관에서 열린 트리오웍스의 연주가 그랬다. 재즈트리오 '트리오웍스'는 달이 걸린 밤하늘 아래에서 향해하듯 관객을 이끌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 사람들은 1시간여 동안 그날 밤의 향해를 즐겼다. 현실은 아득했고 그들의 악기는 유난히 더 빛이 났다.

하몬드오르간 연주는 현실을 아득하게 만들고

하몬드오르간(Hammond Organ)이라 하면 대번 교회나 대성당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연주가 떠오른다. 트로트 메들리에도 빈번히 사용되는 건반악기로 1935년 로렌드 하몬드가 발명한 데서 이름이 붙었다. 1960-1970년대 로큰롤 음악에서도 자주 쓰였는데, 특히 밴드 '도어즈'의 연주로 널리 알려졌다. 도어즈의 멤버 레이 만자렉(Ray Manzarek)이 들려주는 하몬드오르간 연주는 훗날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하면서도 오묘한 느낌의 하몬드오르간 연주에는 현실을 아득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지난 7월 29일 여주세종문화재단은 <하몬드오르간의 향해>를 통해 공연 이름처럼 하몬드오르간이라는 악기의 매

력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트리오웍스(Trio Works)'는 그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재즈계에서 명성을 이 어온 오종대(드럼), 성기문(하몬드 오르간), 찰리 정(기타)이 2018년 뭉쳐 만든 재즈트리오이다. 깊은 블루스 정서를 품고 있는 찰리 정은 기타, 흑인음악의 소울이 담긴 연주를 들려주는 성기문의 하몬드 오르간, 가슴을 때리는 오종대의 드럼 연주가 한데 엮여 화려하고도 깊은 사운드를 들려준다. '음을 조각하는 마술사'라 불리는 재즈 드러머 오종대는 네오 트래디셔널 재즈트리오, 트리오로그의 멤버로도 활동하며 재즈 팬들의 지지를 꾸준히 받아왔다. 재즈피아니스트이자 하몬드 오르간 연주자인 성기문은 10대 때 독학으로 피아노를 익힌 후 '이정식밴드'에서 연주했고 이후 '웅산밴드', '성기문오르간트리오', '봄여름가을겨울' 세션 등을 통해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찰리 정 역시 '찰리정블루스밴드', '박근살롱'은 물론 개인 활동을 통해 국내 최정상급의 재즈 기타 실력을 보여준 연주자이다. '드림 팀'이라 불려도 좋을 trio웍스는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명성황후생

가 문예관에서 깊은 내공을 기반으로 리드미컬하면서도 견고한 연주, 절정의 연주 하모니를 생생히 들려줬다.

### 트리오웍스, 관객들과 마음을 나누다

공연은 2019년 발매한 첫 앨범의 1번 트랙 〈군산 가가〉로 문을 열었다. 도입부의 기타 선율에서는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한 이의 설렘이 읽혔고, 이후 이어지는 화려한 오르간·드럼 솔로 연주가 돋보였다. 두 번째 곡 〈Wind〉에서는 따뜻하면서도 센티멘털한 연주가 관객의 마음을 흠뻑했다. 곡과 곡 사이, 드러머 오종대는 마이크를 잡고 곡을 설명하거나 이런저런 일화를 들려주며 관객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공연 도중 심벌즈가 고장 난 적이 있다는 일화에 관객들은 미소 지었고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역시 음악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은 신나는 연주를 하는 밴드라며 예전에는 공연 도중 춤

을 춰도 된다는 말을 관객에게 건네기도 했었는데, 이날 공연에서 마음으로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는 관객들이 분명 있었으리라. “우리 음악 괜찮죠? 멋있잖아요.(웃음)” 드러머 오종대의 말에서는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관객들 귀에 익숙한 커버 연주 두 곡이 이어졌다.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의 〈서머 타임〉을 커버한 trio웍스는 시종일관 잔잔하면서도 세시한 무드로 공연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하몬드 오르간으로 연주가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곧바로 다음 곡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1980년대 소피 마르소 주연으로 개봉했던 청춘 영화 〈라붐(La Boum)〉의 삽입곡 〈리얼리티〉였다. 영국 출신 가수 리처드 샌더슨(Richard Sanderson)이 부른 이 명곡은 당시 소피 마르소의 인기로 힘입어 국내에서도 크게 히트했다. 두 곡 덕분에 학부모를 비롯한 어른 관객들은 잠시나마 추억에 젖은 채 음악에 몰두했다.

### 그날 밤 향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대중가요는 노랫말과 강렬한 멜로디, 비트를 대개 직관적으로 들려준다. 반면 연주곡들은 노랫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감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못 사람들은 연주곡을 다소 어렵다고 느낀다. 특히 재즈 연주곡이라고 하면 더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연을 본 관객이라면 그런 오해를 조금은 풀 수 있었으리라. 모든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감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었다. 관객들은 공연장을 관통하는 연주에 몸을 맡기며 그날 밤의 향해를 충분히 즐겼으니까.

특히 찰리 정이 작곡한 〈사피언스〉와 〈바람의 땅〉은 이런 향해 분위기를 더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찰리 정은 연주할 때 진지하지만 엉뚱한 면도 많다”는 오종대의 말처럼 〈사피언스〉에는 찰리 정이 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유자재로 훑달리는 꽃잎 같은 기타 연주, 위트와 재치가 느껴지는 곡 구성 덕분에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찰리 정이 티베트 여행 후 만들었다는 〈바람의 땅〉은 말하듯,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연주가 돋보인 곡으로 방랑자의 뒤통무니를 따라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성기문이 작곡한 〈문 블루스〉에서는 하몬드 오르간의 매력에 흠뻑 빠질 듯한 연주를 선보였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뜨거운 분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trio웍스는 다시 무대에 올라 앙코르 곡으로 〈A Whiter Shade of Pale〉을 연주했다. 프로콜 하림(Procol Harum)의 원곡이 위

낙 잘 알려졌기에 관객들은 끝까지 웃고 박수 치며 그들의 연주를 즐길 수 있었다. 드러머 오종대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수도사’에 비유했다. “연주자는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자신의 몸을 단련하듯 매일매일 연습으로 단련해야 해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압박감이 대단하니까요. 연주자는 어떤 면에서 수도사 같아요.” trio웍스의 화려하고 깊은 연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정답은 간단하고도 명확하다. 매일 단련해야 한다는 것. 이런 믿음직한 선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항해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일상에 몸이 매인 우리는 때때로 공연장에서 방랑자가 된다. 눈을 감으면 저기 저곳에 사막이 있고, 끝도 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있다. 공연 제목은 〈하몬드 오르간의 향해〉였지만 항해를 이끈 것은 trio웍스 멤버 전원이었다. 멤버들은 시종일관 눈을 마주치며 연주의 완성도를 높였고, 관객과 소통하며 공연장에 한데 섞여들었다. 그들의 연주에 따라 사람들은 그날 밤을 만끽했다. 특히 몽롱한 분위기를 만드는 하몬드 오르간 연주는 이를 더 부추겼다. 한 시간 남짓한 공연 동안 현실은 아득했고, 꿈은 한발 더 가까웠다. 높은 파도 없이 잔잔한 바다 위에서 그날 밤의 향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객석의 50%만 채운 공연장 모습



**10월 문화가 있는 날**  
〈해금의 향해〉

공연

매달 마지막 주 중 하루, 무료로 만나는 여주세종 문화재단의 공연 선물 '문화가 있는 날'. 10월은 여주시의 예술인, 해금 연주자 이주연을 중심으로 국악 타악기 연주자, 더블베이스, 건반 등 양악기 연주자가 출연해 퓨전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민요, 동요, 대중음악 등 다양한 곡으로 구성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악기 소개, 곡 안내 등 해설을 곁들여 여주 시민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0. 27.(수) 오후 7시  
명성황후생가 문예관  
무료 공연  
관람 신청 : 재단 홈페이지  
문의 : 031-881-9681

**11월 문화가 있는 날**  
〈오케스트라의 향해〉

공연

11월은 방성호 지휘자가 이끄는 웨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떠나는 오케스트라의 향해이다.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정통 클래식 음악을 바이올린, 첼로, 더블베이스, 클라리넷, 오보에, 트럼본, 트럼펫에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등이 더해진 21인조 구성의 오케스트라가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들려줄 예정이다.

11. 24.(수) 오후 7시  
명성황후생가 문예관  
무료 공연  
관람 신청 : 재단 홈페이지  
문의 : 031-881-9681



10. 2.(토) 오후 4시  
명성황후생가 문예관  
관람료 : 1만 원  
관람 등급 : 36개월 이상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31-881-9681

**키즈 클래식 - 그림자극 〈비발디, 사계〉**

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인 그림자극과 함께하는 키즈클래식 〈비발디, 사계〉는 클래식과 그림자극의 만남으로 비발디의 〈사계〉에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야기를 대입시켜 사계절의 변화와 삶의 철학적인 교훈을 그림자극으로 보여준다.

**K-JAZZ 〈러브레터〉 with 주현미**

공연

‘짝사랑’,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러브레터’ 등 수많은 히트곡의 주인공, 대중음악의 한 역사, 주현미를 세종국악당에서 만난다. 주현미의 주옥같은 곡들에 필윤그룹의 재즈 연주를 더해 더욱 특별하고 새로운 무대로 여주 시민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11. 27.(토) 오후 5시  
세종국악당  
관람료 : 3만 원  
관람 등급 : 초등학생 이상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31-881-9681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공연

나쁜 말을 내뱉는 부정적인 아이, 만복이. 잘하는 것도 잘되는 것도 없는 아이, 장군이. 이들이 신비한 떡집을 만나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아이가 되는 과정을 담은,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수록 도서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를 뮤지컬로 만나! 원작의 재기 발랄한 상상력과 따뜻한 감성이 담긴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은 아이는 물론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아이, 어른 모두에게 동심을 가득 채워주는 공연이다. 아이에게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동심을, 어른에게는 잠시 잊고 있었던 동심을 일깨워 각자의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을 선사한다.



12. 3.(금) 10시 30분, 오후 2시,  
12. 4.(토) 오후 2시  
세종국악당  
관람료 : 2만 원  
관람 등급 : 36개월 이상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31-881-9681

**교과서에서 나온 예술수업**

교육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고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여주시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과서에서 보던 무용, 뮤지컬, 연극 등을 어린이들과 함께 관람하고 호흡하며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보건 교과서에 나오는 성교육을 뮤지컬로 재미있게 각색한 〈엄마는 안 가르쳐줘〉, 체육 교과서에 나오는 발레를 해설을 곁들여 표현한 〈백조의 호수〉 갈라 공연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2학기 중  
여주시 관내 초등학교 6곳  
문의 : 031-881-9683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어린이 소리극 〈벨벳토끼〉**

공연

영미권의 고전 동화 《벨벳토끼》에 한국의 다채로운 전통예술을 입혔다. 판소리, 민요, 연희, 악기로 그려낸 어린이 소리극 〈벨벳토끼〉 속 아이와 토끼 인형은 만나고 헤어지며 ‘진짜’와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 아이의 감정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공감과 치유의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11. 28.(일) 오후 4시  
명성황후생가 문예관  
관람료 : 1만 원  
관람 등급 : 36개월 이상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31-881-9681





**여주목(청심루) 학술대회**

**학술대회**

여주목과 청심루 복원의 의미와 과제

여주목의 목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청심루 복원의 당위성 확보와 함께 여주 지역학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현대적 의미에서 여주목과 청심루 복원의 의미와 과제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9. 30.(목)  
 여주 선밸리 호텔  
 여주세종문화재단 유튜브 방영(녹화본)  
 문의 : 031-881-9689

구분	내용	발표자
기조 강연	여주의 정체성 정립과 '여주학' 연구 -조선시대 여주목 역사의 복원과 관련하여	오영교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 교수)
<b>제1부 여주목과 청심루의 가치와 현대적 의미</b>		
1주제	여주목 관아와 청심루의 역사적 복원을 위한 사례 연구	이상순 (연세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2주제	여주팔경의 조망 시점으로 본 청심루의 위상과 경관 구조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3주제	여강 청심루 제영 연구	반재유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b>제2부 여주목과 청심루의 지역적 의미와 시민의식</b>		
4주제	지역 언론에서 본 여주팔경과 청심루	이장호 (여주신문 대표)
5주제	여주 관련 읍지·지리지와 근대 기록물을 통해 본 청심루와 여주 관아	조원기 (여주박물관 학예사)
6주제	청심루에 대한 여주 시민 인식 조사	안동희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b>제3부 (종합토론)여주학 출발과 청심루 복원의 미래</b>		

**2021 동학 학술대회**

**학술대회**

여주 동학의 전개와 민중사적 모색

여주 금사면에 있는 해월 최시형 묘소의 2021년 경기도 문화재 지정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로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민중의 개혁 사상이었던 동학농민운동의 지역적 발자취와 21세기 관점으로 본 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 기조 강연, 학술 발표,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여주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학술대회는 집에서 손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며, 향후 여주세종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11. 11.(목) 11:00~18:00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  
 문의 : 031-881-9694



10. 9.(토)  
 주제 : 이주 시대의 언어  
 내용  
 - 학술 발표 : 수레쉬 카나가라자, 신동일 교수 등 10명  
 - 토크 콘서트 : 일리아 벨라코프, 수잔 사키야 등 5명  
 홈페이지 주소 : hangeulyeaju.kr  
 문의 : 031-881-9694



**2021 한글날 국제 학술대회**

**학술대회**

이주 시대의 언어

지난 2년간 여주에서 개최된 한글날 학술대회가 2021년에는 세계 유수의 언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열린다. 젊은 세대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며 한류와 함께 갈수록 확산되는 우리 한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글날에 맞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세계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학술 발표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5명의 토크 콘서트 영상은 10월 9일부터 홈페이지(hangeulyeaju.kr)에서 시청 가능하다.



10. 8.(금)~10. 11.(월)  
 세종대왕릉 일원  
 토크 콘서트 : 2021. 10. 9.(토) 19:00~21:00 (여주세종문화재단 네이버TV 생중계)  
 관람 : 먹빛누리전, 세종대왕전국한글회화대회 수상작 전시, <세종실록 도자에 새기다> 자율 관람  
 문의 : 031-881-9693

**2021 한글날 문화 행사**

**문화 행사**

훈민정음 반포 제575돌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역사적 가치를 기리며, 한글 도시 여주를 홍보하기 위한 2021 한글날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비밀 등 다양한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10월 9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최태성 강사와 뮤지컬배우, 트로트 가수, 국악인 등이 출연해 한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여주세종문화재단 네이버TV 생중계). 또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세종대왕릉 일원에서는 다양한 한글 관련 전시가 열린다. 먼저 (구)재실에서는 먹빛누리전과 세종대왕전국한글회화대회 수상작 전시를,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광장에서는 <세종실록 도자에 새기다>라는 주제로 한글 도자기 작품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11. 17.(수)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문의 : 031-881-9694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명성황후 승모제**

**문화 행사**

명성황후 승모제는 조선의 마지막 왕비 명성황후가 태어나서 8살까지 살았던 명성황후생가에서 매년 11월 17일 개최하고 있으며, 왕이나 왕비의 신위에 왕이 직접 예로써 제사를 지내는 전통 그대로의 작헌례를 고증을 통해 재현해 명성황후 탄신일을 맞아 생가를 방문하는 시민과 조선 후기의 왕실 문화를 함께하는 문화 행사이다.

**2021 여주오곡나루마당**

**축제**

정이 넘치고 흥이 넘치는 축제 한마당이 여주에서 펼쳐진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여주의 특산물(오곡 등)을 조포나루터 황포 돛배를 이용해 한양으로 진상한 기록이 남아 있어, 예로부터 여주 쌀·고구마·오곡 등 여주의 농특산물이 맛과 품질이 뛰어난 우수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1년 문화관광축제이자 경기관광대표축제에도 이름을 올린 <여주오곡나루마당>은 코로나19로 치친 시민에게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해줄 것이다.



10. 15.(금)~10. 17.(일)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일원  
 문의 : 031-881-9692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빈집예술공간#1

전시

빈집예술공간#1은 여주 한글시장 4블럭 내 1층 상가에 위치한 공간으로 지역 내 낡은 주택이나 상업 공간을 임대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며 예술가와 여주 시민들이 함께 도시에 문화를 입히는 문화예술사업이다. 전시, 공연, 교육 등을 마련해 예술로 함께 소통하고자 한글시장 내 빈집예술공간#1을 시작으로 점차 여주 지역 곳곳에 더 많은 문화 공간을 늘려갈 예정이다.



※ 온라인 전시: 여주세종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관람가능  
 장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번길 24, 1층  
 운영 시간: 10: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문의: 031-881-9680/9689

2021년 여주세종문화재단 <빈집예술공간> 전시			
전시 기간	전시명	주최/주관	장르
09. 28.~10. 08.	걸어서 동네 한 바퀴	목지파	회화, 사진
10. 12.~10. 23.	나무, 삶을 조각하다	김정명	조각
10. 26.~11. 06.	빛을 그리다	여주시장애인복지관	회화
11. 09.~11. 22.	여주 문화 사진 공모전	여주세종문화재단 기획전	사진
11. 23.~12. 04.	꽃으로 보는 세상	백계옥	회화
12. 07.~12. 18.	여주 학생미술작품 전시회	여주미술교육연구회	회화
12. 21.~2022. 01. 03.	문화예술 지원사업 결과전	여주세종문화재단 기획전	복합

## 2021년 동네방네 영화관

자동차영화관

차에서 영화 보자!

영화관이 없는 지역적 특성과 코로나19 장기화 속 여주 시민의 안전한 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된 자동차영화관! 차 안에서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자동차영화관은 어른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아이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자동차영화관에서는 액션, 코미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독립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다. 9월 이후 진행되는 자동차영화관에서는 기존 방식에 변화를 주어 영화뿐만 아니라 관람객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후기 작성', '여주 알기 퀴즈 쇼' 등 이색적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0월~12월 3개 시즌 진행(예정)

금은모래캠핑장 제1 주차장

티켓: 무료(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

연령: 상영작에 따라 상이(전체, 12세, 15세)

문의: 031-881-9688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접수 기간: 11. 1.(월)~30.(화)  
 출품 수: 1장소당 3점 이상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yjcf0625@naver.com  
 자세한 사항: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문의: 031-881-9693

## 여주 사진 찍기 좋은 곳 공모전

공모전

여주시 자연경관과 관광지 등 사진 촬영 장소로 활용도가 높은 곳

'여주 사진 찍기 좋은 곳 공모전'은 여주시 문화유적, 주요 관광지, 생태환경 등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장소로 활용도가 높은 곳이면 어디라도 참가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한 장소당 3점 이상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 100만 원을 비롯해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 등 12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방법은 주제에 맞는 사진 촬영 후 개인 SNS에 #여주 #여주여행 #촬영한 장소로 해시태그를 사용 후 게재해야 하며 또한 공모전의 목적이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찾아내는 것인 만큼 기존 사진의 출품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 장소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한 사진 1장과 촬영 장소에 대한 관광과 여행 후기를 참가 신청서에 함께 적어 제출해야 한다.

구분	수량	시상 내역	
		상금	비고
총계	23	660만 원	
대상	1	150만 원	
금상	2	각 100만 원	
은상	3	각 50만 원	
동상	5	각 20만 원	
입선	12	각 5만 원	

접수 기간: 8. 23.(월)~9.30.(목)  
 출품 수: 제한 없음  
 접수 방법: 온라인 · 등기우편 · 방문 접수  
 자세한 사항: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문의: 031-881-9689

## 여주기록자원 수집 공모전

공모전

여주 관련 기록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분석해 시대별 여주의 모습(생활, 환경, 문화, 사건, 시장 등)과 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전시·교육·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여주기록자원 수집 공모전 진행한다.

## 2021 여주 문화 사진 공모전

공모전

천년 도자의 고장 여주!

여주도자기축제가 개막된 지 올해로 33년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여주의 도자기와 관련한 추억과 사연이 담긴 사진을 주제로 <여주 문화 사진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사진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여주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가치를 높이고 여주의 도자기에 대한 시민의 애정을 돌아보고자 한다.



구분	인원	시상 내역		
총계	38명	상장	시상금	비고
최우수상	1명	이사장상	100만 원	*시상금의 30%는 여주 지역화폐로 지급
우수상	2명	이사장상	각 50만 원	
장려상	5명	이사장상	각 30만 원	
입선	30명	이사장상	각 10만 원	

접수 기간: 9. 6.(월)~10.3.(일)  
 출품 수: 1인당 2점 이내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yjsj12345@naver.com  
 자세한 사항: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문의: 031-881-9687

## 여주세종문화재단 생활문화매거진 <여유> 독자 후기+설문 이벤트

<여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여주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가고자 가을호부터 창간·발간하는 생활문화예술 매거진입니다.

더 재밌고 알찬 매거진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후기 작성과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기간 : 10월 1일(금)~11월 15일(월)**

### 창간호 <여유>를 만든 사람들

#### 박복선(편집위원)

마을을 해체하면서 시작된 근대는 생태 위기, 사회 위기로 귀결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시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립, 자치를 회복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 핵심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 만드는 <여유>가 여주시의 문화적 자립과 자치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 송현아(편집위원)

여주에는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예술가도 많습니다. 여강이 흐르는 여주에는 아름다운 풍경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주에는 갈 곳이 없다는 불만, 즐길 거리가 없다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유> 창간호를 준비하면서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여유'가 하나들 쌓여가면 해답도 곧 얻을 수 있겠지요. 그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 서동수(기획경영팀)

<여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여주의 넉넉함을 담아 생활문화예술 매거진을 발간했습니다. <여유>에서 삶과 이야기,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같이 쌓아나가길 부탁드립니다.

#### 김근혜(기획경영팀)

<여유> 담당자로서 함께한 지난 5개월간의 시간이 창간호를 기획하는 설렘으로 시작해 발간하는 설렘으로 마무리하네요. <여유>가 나오기까지 함께하고 도와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여유>가 주는 소소하고 소중한 즐거움이 많은 분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현주(편집실)

<여유> 덕분에 여주를, 좋은 여주 분들을, 여주의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한 권의 책을 새로이 내놓는 어렵고, 의미있고, 책임 막중한 일을 덕분에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먼 갈 길, 여강의 물줄기처럼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살피며 가겠습니다. 여주 시민 모두가 <여유>를 통해 여유를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 권라희(편집실)

검은 말의 땅 여주를 담아내고자 찾아가고 깨달아가면서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조금씩 빠져 들어갑니다. 매체의 힘이 있다고 믿으며 <여유>에 여주 시민과 여주세종문화재단을 하나로 잇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책을 보는 모든 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재(사진작가)

여주는 항상 빛이 좋은 곳이에요. 높은 하늘과 강렬한 빛, 초록이 넘쳐나는 부드러운 빛. 무엇보다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의 눈빛. 이 모든 게 모여 여주의 도자기처럼 예쁘게 담아낼 수 있었어요. <여유> 창간호에 제가 발로 뛰어 찍은 사진들이 실려 기쁘고 뿌듯합니다. 사진에 담아내면서 여주의 매력에 흠뻑 빠졌어요. 앞으로도 여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 이미지로 전달하는 역할로 <여유>의 발전을 도울게요.

## 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



1. 여주세종문화재단
2. 세종국악당
3.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4. 여주시민회관
5. 신록사국민관광지-야외공연장

<b>발행일</b>	2021. 9. 29.
<b>발행처</b>	(재)여주세종문화재단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7 031-881-9690, www.yjcf.or.kr
<b>발행인</b>	김진오
<b>편집위원</b>	박복선, 송현아
<b>기획</b>	서동수, 김근혜
<b>간별</b>	계간
<b>제호 디자인</b>	아랑 김근혜(캘리그래퍼)
<b>편집 디자인</b>	플러스81스튜디오(02-542-0810)
<b>ISSN</b>	2799-4651